

2019

동심동덕

同心同德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
동심동덕

2018 범농협 사회공헌보고서
Nonghyup CSR Report 2018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소통하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날아가듯이
범농협인 모두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향해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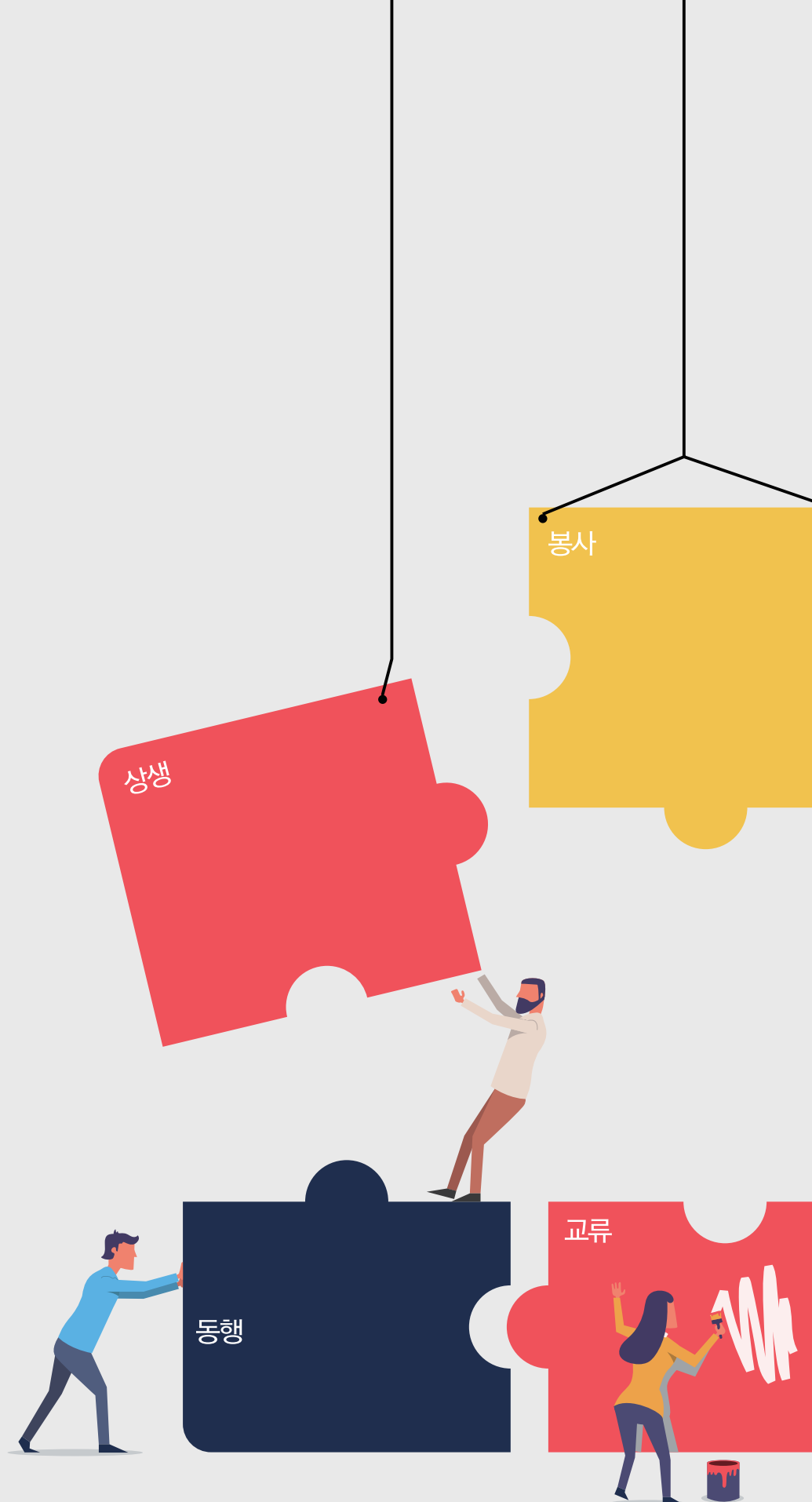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향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임하는
 범농협인의 가슴속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환하게 웃는 그날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갑니다.

ABOUT THIS REPORT

2018 범농협 사회공헌보고서는
 농협이 다방면에서 펼쳐 온 사회공헌 활동 중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펼쳐 온
 농협 CSR 사회공헌보고서입니다.



2018 CSR Report

Nonghyup



Contents

INTRO	CEO 인사말	04
	개요	06
	철학과 비전	08
	범농협 사회공헌 전략	10
	사회공헌 발자취	12
	범농협 사회공헌 월별테마 및 중점사업	14
STORY	커버스토리: 2018 범농협 사회공헌 Full Story	18
	상생: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을 추구합니다	21
	봉사: 작은 손길로 큰 보람을 키웁니다	33
	동행: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47
	교류: 오며 가며 차곡차곡 정을 쌓습니다	59
	나눔: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의 미학을 실천합니다	73
	희망: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의 꿈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85

CEO 인사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전 1040년 즈음, 중국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포악한 상(商)나라 주왕(紂王)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상나라의 도읍인 조가로 진격합니다. 무왕은 그곳에서 수에서 밀리고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단결하여 싸움에서 공을 세우자’는 맹세를 담은 ‘태서(泰誓)’를 선포합니다.

“주왕은 많은 군사와 관리를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한데 합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다 함께 일치 단결하여 하나의 목표로 마음과 덕을 같이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이른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고사는 바로 우리 농업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이자, 나아가야 할 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지금, ‘동심동덕’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역단위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지역사회 기여’라는 항목을 추가한 이후,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연대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협은 1961년 설립된 이후 세계 4위, 재계 9위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따라 울릉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전국 1만3,000여 사업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의 성장과 발전 역시 농협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협은 올해 지역사회공헌부를 신설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범농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각 계열사 및 농·축협별로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뜻과 취지를 더욱 널리 알려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8년 범농협 사회공헌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농심을 가슴에 품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한 농협인들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향한 범농협인의 발걸음이 잦을 때,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은 성큼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땀과 눈물로 거둔 농작물을 아낌없이 나눠 주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동심동덕’의 뜻을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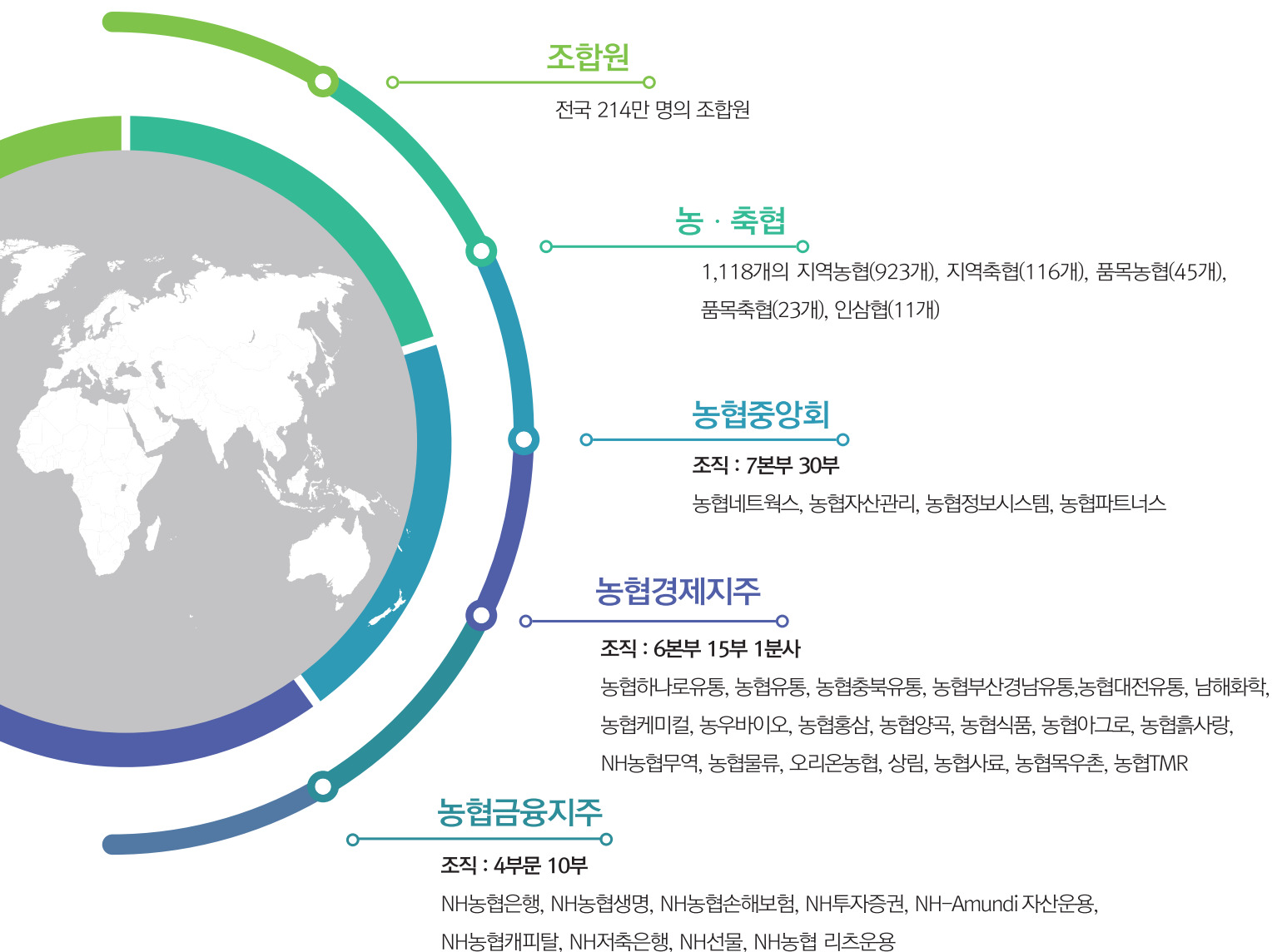
김 병 원

개요 Overview

범농협 구조

Structure

농협은 1961년 통합 농협으로 출범한 이래 이 땅의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온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 통합과 복지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을 넘어 5천만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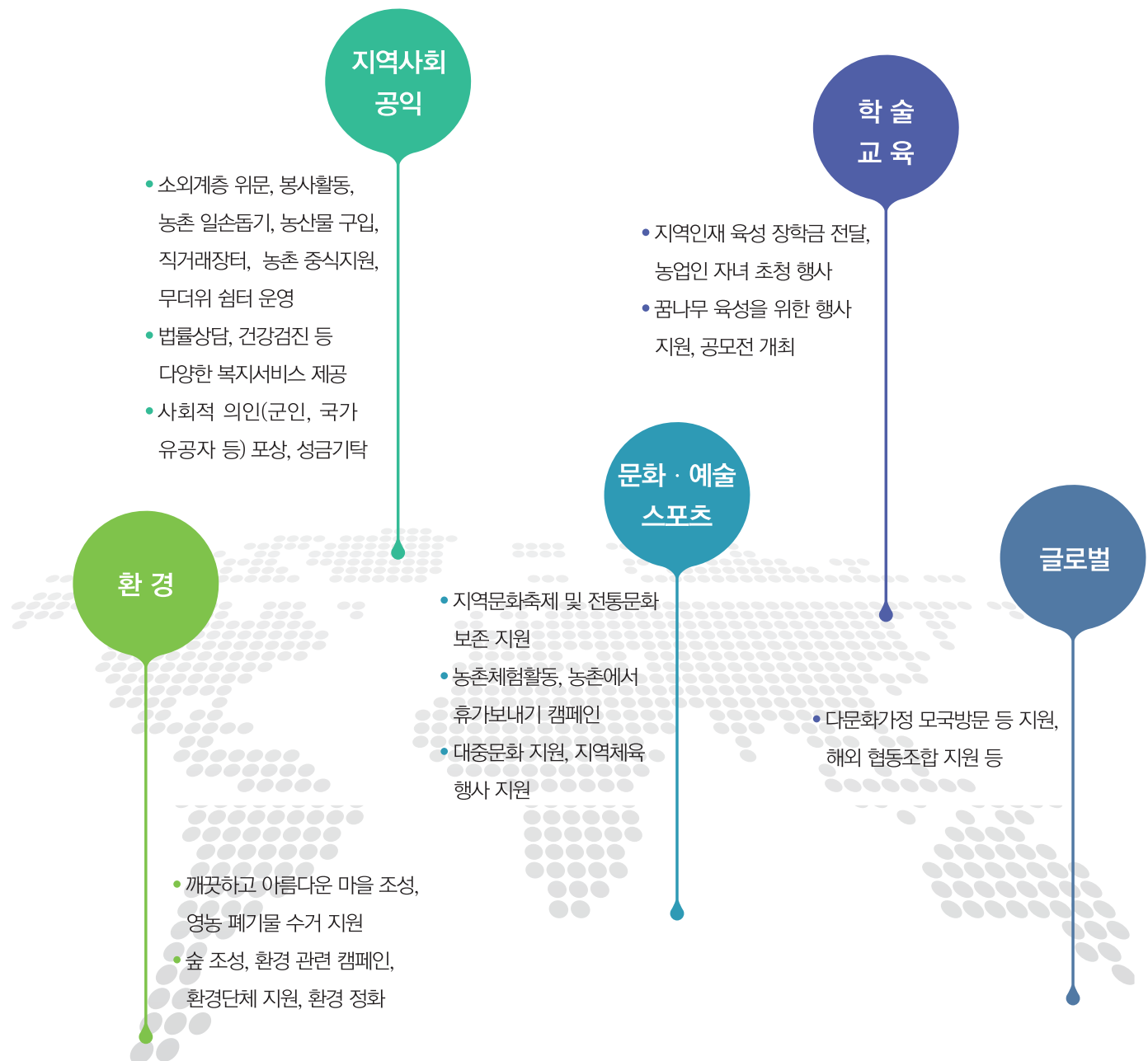


(2019. 4월 말 기준)

사회공헌 범위

Scope

범농협 사회공헌은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관·단체 등에 위탁 또는 기부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철학과 비전 Philosophy & Vision

비전

Vision

농협은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꿈꿉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행복한 세상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사회공헌 활동의 철학입니다. 나눔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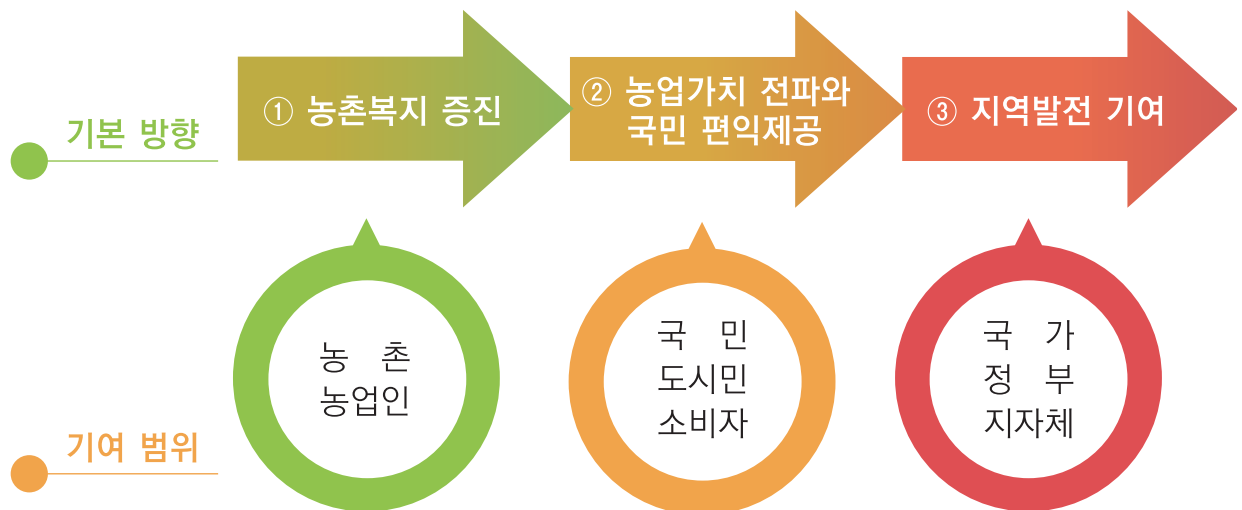
Contribution

농협은 지역사회공헌부를 신설하여 ‘범농협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공헌 활동’의 총괄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범농협 사회공헌 활동 집중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범농협 지역사회 기여 3대 기본 방향

- ① 농촌복지 증진 ② 농업가치 전파와 국민 편익제공 ③ 지역발전 기여

범농협 지역사회 기여 3대 기본 방향



슬로건

slo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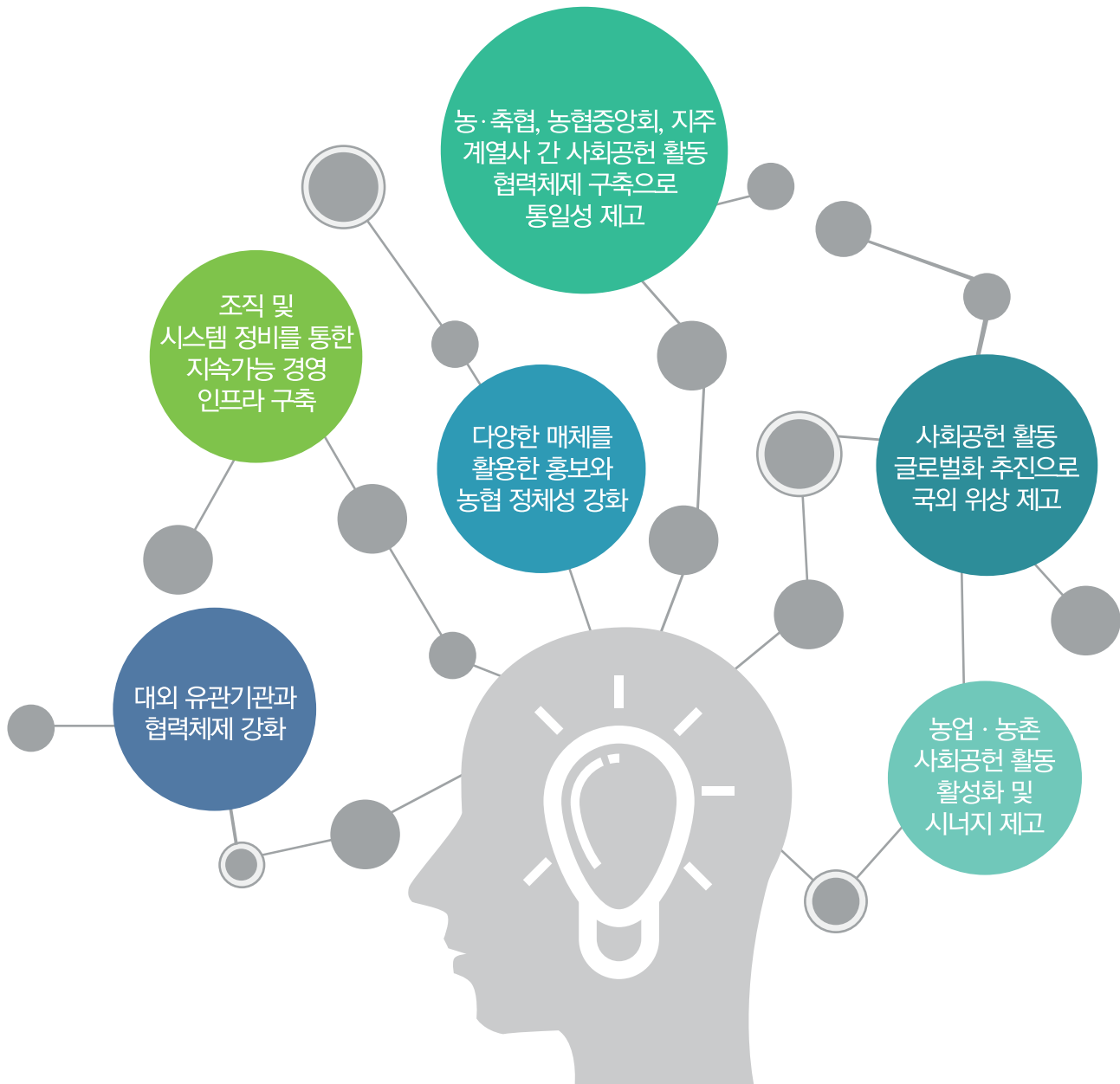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이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활짝 웃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온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농협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상입니다.

범농협 사회공헌 전략 CSR Strategy

사회공헌 전략 Strategy

농협은 농·축협,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각 계열사들이 통합적,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범농협적인 체제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상생과 나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Propuls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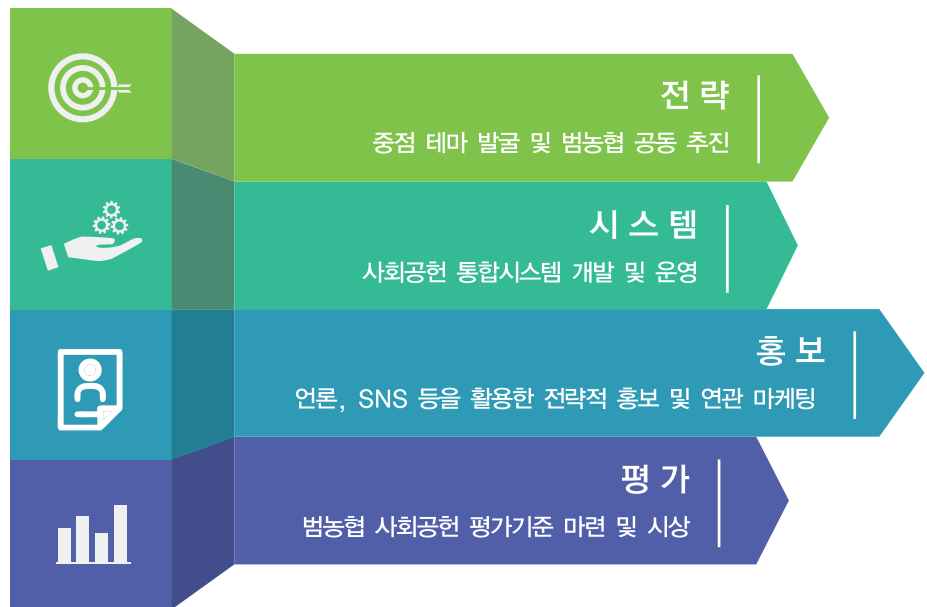
농협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범농협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와 협동조합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목 표

사회적 가치와 협동조합 가치 동시 창출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운영방향

범농협 사회공헌 시너지 극대화



중점 과제

1. 경관보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
2. 농촌복지 · 의료 · 문화 서비스 확대
3.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
4. 전통문화 계승 · 발전, 도시민 힐링
5. 소외계층 나눔 확대 등

추진 조직

「범농협 사회공헌위원회」

- 범농협 사회공헌 활동 정책 조정 및 방향 제시
- 사회공헌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의견수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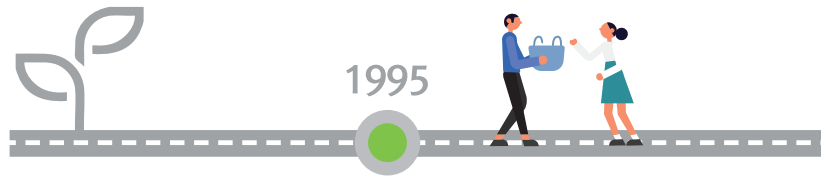
「범농협 사회공헌 공동추진 협의회」

- 사회공헌 공동추진 관련 협의 및 의견 수렴
- 과제 발굴 및 진행사항 점검, 피드백 등

사회공헌 발자취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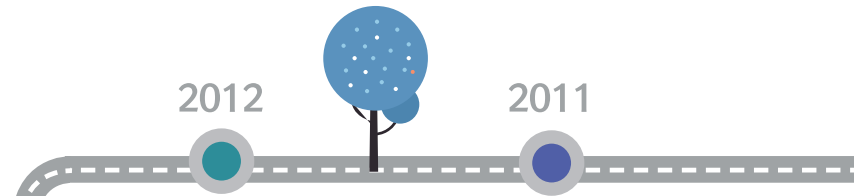
무료 법률구조사업에서부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까지,
20여 년 이상 이어진
나눔의 발자취

농협은 농업인과 우리 이웃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살피고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희망을 품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

농업인들의 인권보호와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행복채움 금융교육

전국 14개 지역 청소년금융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은행
직업체험, 금융사기 예방,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협장학관 운영

농업인 자녀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도시에서의 대학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농촌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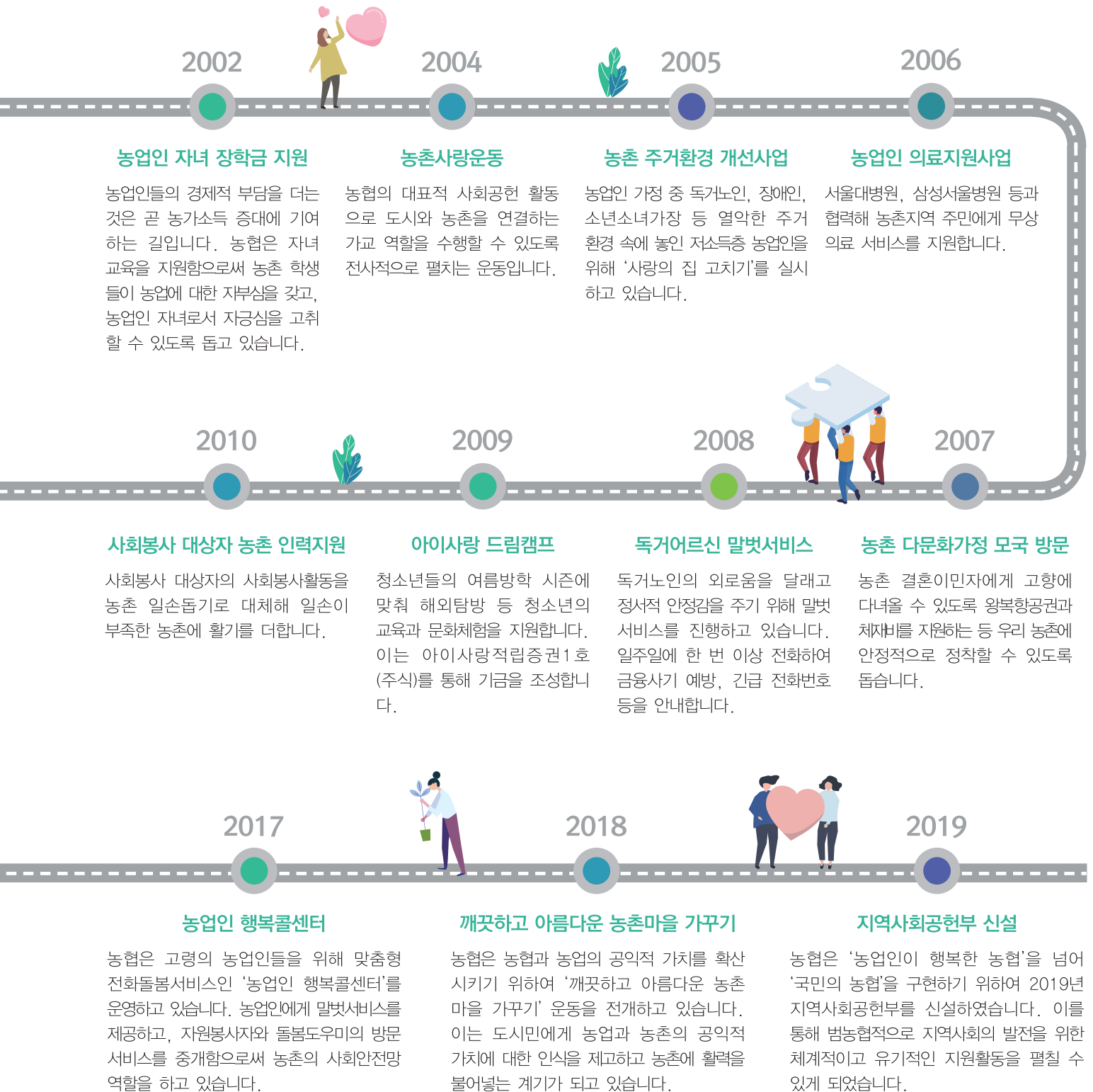


농촌 다문화 청소년 캠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모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농협재단봉사단과 멘토-
멘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합
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
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
으로 참여시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농협동운동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CSR HIGHLIGHTS

범농협 사회공헌 월별테마 및 중점사업

농협은 2018년에도 1월 새해맞이와 설·입학을 시작으로,
12월 겨울나기까지 매월 테마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략적인 범농협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Thema: 설·입학·새해맞이

중점사업

사랑의 떡국나눔
장학금 지급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2018 범농협 임직원
봉사시간 합계



34,394 건



760,215 시간



193,364 명

※ 중앙회 및 계열사, 농·축협 포함



Thema: 전통과 나눔

중점사업

소외계층 도시락 배달
정월대보름 행사
범농협 차 없는 날 캠페인

3

Thema: 경관보전
중점사업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꽃씨 나누기
 농기계 수리 및 점검 지원



4

Thema: 농촌봉사
중점사업
 농촌 일손돕기
 농촌 중식 지원
 식목일 연계 숲 가꾸기



5

Thema: 이웃사랑
중점사업
 소외계층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행사
 다문화가정 지원
 어린이 금융교실

범농협 사회공헌 월별 테마 및 중점사업

Thema: 호국 · 보훈

중점사업

현충일 군부대 방문
6.25 참전용사 후원
헌혈 실시



Thema: 휴가 · 힐링

중점사업

농촌체험활동 지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Thema: 흑서대비

중점사업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Thema: 명절맛이

중점사업

삼계탕 나눔, 사랑의 송편 나눔
소외계층 돌봄
추석맛이 고향마을 가꾸기

10

Thema: 수확 지원

중점사업

농촌 일손돕기
농촌 중식지원



12

Thema: 겨울나기

중점사업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팔죽 나누기
연말 사랑의 기부행사



11

Thema: 농업인 실익 판로지원

중점사업

직거래 장터
사랑의 김장 담그기
농업농촌 가치 홍보 캠페인



2018 농협금융지주
임직원 봉사시간 및 인원

176,573 시간

75,609 명

작은 나눔, 큰 행복을 향한 범농협 이야기

범농협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PHOTO STORY

1		4
2	3	5
		6

농협이 동심동덕(同心同德)은 농심농덕(農心農德)의 힘찬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동조합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2016년 이후 1만여 명이 농협이념전문과정을 수료했고, 정체성과 이념 회복을 위한 콘퍼런스에는 2016년 이후 28회, 1만5,393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농협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3.8%가 '지역사회 발전에 농협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고, 69.8%는 '지역사회 발전에 농협이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농협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농협과 계열사, 중앙회는 '하나'가 되어 10만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범농협 사회공헌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

우리 농촌이 5,000만 국민의 휴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범농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의 고향인 농촌마을을 깨끗

“

농협의 사회공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겨울 저수지를 날아오른 수십만 가창오리가 부딪히지 않고 군무를 그리듯이,
범농협인 모두는 농민을 위한 한 방향으로 마음의 고향인 농심으로 날아갑니다 ”

”



- ①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방문한 김병원 회장
- ②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돈보기를 씌워 드리는 허식 부회장
- ③ 어린이날을 맞아 사내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김병원 회장

- ④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한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
- ⑤ NH농협은행의 청소년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행복채움금융교실
- ⑥ 깨끗하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예 동참해 폐비닐을 걷어내는 김병원 회장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275개 마을 19,372명이 참여했으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불을 조성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 지원과 청년 농업인 육성

농협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나이가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의 1,084개 농·축협에서 총 42,657명에게 38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1월과 2월에 87억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100년 농협을 위한 준비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7년부터 ‘미래 농촌정주 장학생’ 제도를 만들어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농고생과 농대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농사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PHOTO STORY

1	2
3	

- ① 농촌마을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김병원 회장
- ②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김장대축제' 현장을 둘러보는 김병원 회장
- ③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방문한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이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설립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이 노년의 네 가지 어려움(四苦)이라고 하는 ‘외로움(孤獨苦)’ ‘아픈 몸(病苦)’ ‘가난(貧苦)’ ‘일거리 부재(無爲苦)’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 드리고,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설립,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8월에는 상담원들이 야간 연장근무를 하며 농촌 어르신들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찰청과 협약을 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

농업인이 바빠지면 덩달아 농협도 바빠집니다. 영농철 농촌 들녘이 기지개를 켜면, 우리 조상들은 청명과 곡우를 기점으로 부지깽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 농촌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3주 동안 범농협 임직원 및 우수

고객, 자원봉사자 5만6천여 명이 함께하는 수확기 범농협 전국 집중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업인들 점심을 책임진 고향주부모임 대구시지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30농가 1만4,800인분에 달하는 중식을 제공하였으며, 2018년에도 5,000인분의 중식을 농가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농심을 가슴에 품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범농협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농협의 사회공헌은 우리 농촌과 우리 사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겨울 저수지에서 배를 채운 가창오리가 저 먼 시베리아 고향으로 다시 날아가듯이, 농협의 동심동덕(同心同德)은 농심농덕(農心農德)으로 범농협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음의 고향인 농촌으로 달려 갑니다.

상생

相生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고향, 농촌의 어메니티를 되살리다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광상품과 연계해 도시민이 찾아오도록 하면 더 많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농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국민이 이러한 노력들을 좋게 평가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때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_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8년 4월 30일 충남 금산군 부리수통 마을에서 '2018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Start-up 행사를 열었다. 이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한 농협의 다양한 활동이 본격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처럼 농민들이 경관보전직불금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농협은 발대식 이후 범농협 차원에서 추진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더욱 확산 시키고 중간 평가를 겸하는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PHOTO STORY

1 2

- ①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마을 대표들
- ② '2018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Start-up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병원 회장

2018년 7월 31일까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농협중앙회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를 맡았다. 평가항목은 아름다운 마을경관, 농촌 주거환경, 깨끗한 농업생산 환경, 농촌 어메니티(Amenity · 쾌적함 혹은 농촌다움) 보존과 활용, 도시민 휴식공간, 도농교류 마을역량 등이며, 대상(1곳) 5,000만원, 최우수상(3곳) 4,000만원, 우수상(5곳) 3,000만원, 장려상(15곳) 1,0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는 전국 153개 마을이 참여해 농촌 가꾸기로 농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 농촌마을의 크고 작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마을만이 할 수 있는 것, 도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다.

2018년 11월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식에선 아름답고 쾌적하게 농촌환경을 조성한 24개 마을이 상을 받았다.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한 24개 마을 수상

대상을 받은 경남 거창의 빙기실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환경과 시설을 정비하고 28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촌마을의 건강한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주민들의 공동체정신과 같은 무형적인 자산도 한몫했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한 기록을 남겨 제2, 제3의 도래마을이 나오도록 길을 터 주고 싶습니다." -홍점기 도래마을(최우수상) 이장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마을 대표의 수상소감이다.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나 자발적 참여의지와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농촌 문제를 농촌마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통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가치 인식을 자리 잡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PHOTO STORY

① 농협-한국환경공단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②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개한 영농폐기물제로운동

1 2

“깨끗한 농촌 만들자” 농협-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

농협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8월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농정활동 공동전개 ▲'영농폐기물수거경진대회' 공동개최 ▲폐기물 수거율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농가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 기쁘다”며 “농협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를 늘려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식 농협부회장은 “농촌은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도시민에게는 아늑한 휴식을 주는 쉼터”라며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환경공단 공동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전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수거 활동

농협중앙회는 8월 30일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2리 마을에서 한국환경공단, (사)농가주부모임 소속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의 회원들이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꽃밭 가꾸기 및 하천 환경정화, 마을 공동집하장 주변 조경수 식재 등의 활동을 벌였다.

농협은 그동안 식량공급, 환경보전, 농촌경관 제공, 전통문화 유지, 홍수방지 등 다양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7년 말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2018년 4월부터 ‘마을 가꾸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농협 및 (사)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신속한 수거활동에 최선을 다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명예이장과 함께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LG U+ 하현희 부회장이 11월 1일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되었다. 하 부회장의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1리 명예이장 위촉은 대기업 CEO로는 처음 있는 일로 새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하 부회장은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LG U+ 및 농협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운학1리에서 열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에 참석해 창고 벽화 그리기와 마을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 참석한 LG U+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주민 임명식도 있었다.

함용문 강원지역 본부장은 “오늘 행사는 LG U+ 임직원들이 명예이장과 주민으로 ‘농촌마을 가꾸기’에 동참해 도농상생을 몸소 실천한 뜻깊은 행사였다”며, “지속적인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 제고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LG U+는 지난 2017년부터 ICT서비스 보급과 의료검진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지원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농협자산관리,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위한 캠페인 전개

농협자산관리는 4월 30일 포천시 신북면 심곡3리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행사에는 허원웅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 최광수 농협자산관리 전무, 박헌모 농협 포천시지부장, 박창수 포천농협 조합장 및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을 주변 꽃밭 조성, 하천 환경정화 활동 및 사과농가 일손 돕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2018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 현황

구 분	건수
농 협	747
관 공 서	205
기 업	660
병 원	110
군 부 대	5
학 교	55
기 타	396
계	2,178



PHOTO STORY

3 4

③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명예이장과 함께한 벽화그리기

④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 후 사과농가 일손돕기에 나선 농협자산관리



재경 강원향우회, 고향마을 가꾸기 봉사활동

농협 재경 강원향우회는 7월 20일 춘천시 신동면 증1리 실례마을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캠페인 확산을 위한 고향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실례마을은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증1리 명예이장인 홍병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과 향우회 회원 및 농협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고령 취약농가 도배·장판 교체, 마을 벽화 그리기, 꽃길 가꾸기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캠페인은 쾌적한 농촌경관을 조성해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창출에 기여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운동이다.

향우회 장덕수 회장은 “내 고향마을부터 앞장서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며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관악농협, 17년째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우리쌀팔아주기운동’ 발대식도 눈길

“대도시농협인 관악농협이 팔도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서울 관악농협이 17년째 펼치고 있는 전국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도농상생 실천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관악농협은 11월 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관악농협 농산물 백화점 대강당과 야외행사장에서 ‘제17회 우리쌀팔아주기운동 및 전국팔도우수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를 열었다.

7일 열린 개막행사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김형신 농협 서울 지역본부장,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 김병국 충북 서충주 농협조합장, 류광석 대전 유성농협조합장을 비롯해 60여명의 산지농협 조합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농산물 소비를 호소했다. 특히 ‘우리쌀팔아주기운동’ 발대식에서는 쌀을 실은 대형 차량 5대가 도열한 뒤 출발 신호와 함께 서울지역 대량 거래처를 향해 떠났다. 또 여성조직과 소비자 대표 20여 명이 ‘쌀포대 이고 오래 서 있기 경연대회’를 갖는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선 전국 26개 산지농협에서 올라온 농산물이 시중

PHOTO STORY

1

① 재경 강원 향우회 ‘고향마을가꾸기’ 봉사활동

2

② 우리 쌀 팔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관악농협





PHOTO STORY

③ 양파 상생마케팅 후원금 2억원을 농협에 전달하는 현대자동차

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관악농협은 ‘팔도우수농특산물대축제’ 기간 동안 산지농협 관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재고 농산물은 전량 인수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해 준다. 2017년 ‘농특산물대축제’를 통해 2억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해 주기도 했다.

박준식 조합장은 “직거래장터는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도농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도시농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양파 제값받기에 힘 보태

농협과 현대자동차가 생산량 급증으로 시름에 잠겨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농협경제지주는 5월 14일 농협 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김원석 농협경제 대표와 이광국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상생마케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2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농협은 14일부터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이 후원금을 활용해 대대적인 양파 소비

촉진 상생마케팅 행사를 진행했다.

이광국 부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민을 돕기 위해 올해도 상생마케팅을 지속하게 되었다”며 “이번 후원이 양파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석 대표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농업인을 돕기 위해 상생마케팅에 적극 참여해 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 경제 활성화에 한몫하는 상생·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5년 농협과 ‘우리 농산물·우리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2억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농협 조합원에게 추가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은 기업의 광고 후원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값에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기업은 광고효과와 사회공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개 기업·단체가 104억원을 후원했다.

폭우·태풍 현장 누비는 농협 부서장들 “이제는 익숙합니다”

농협중앙회와 은행 부장급 간부들은 7월 2일부터 전국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폭우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지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경기 여주 재해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상황 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당초 이날 농협은 57주년 창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내리는 등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후 농협 부서장들의 재해피해 현장 출동은 태풍 뿌라삐룬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됐다.

“각종 사업예산 절감해 폭염·가뭄 극복 지원”

농협중앙회는 8월 14일 가뭄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적인 가뭄 대책을 강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이날 허식 부회장 주재로 열린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자금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농협이 폭염·가뭄 극복에 투입하기로 확정한 금액은 모두 245억원이다. 12일 현재 양수기 8,512대, 스프링클러 9,347개, 차광막 1만9,127개 등을 농가에 보급하는 데 195억원을 사용하고, 향후 가뭄 극복에도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10일 농협은 무이자자금 5,000억원을 지역 농·축협 882곳에 배분했으며, 예치금리 2.1%를

적용하면 농·축협 수혜금액은 105억원에 달한다.

허식 농협부회장은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각종 사업예산을 절감해 농민들이 폭염과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폭염·가뭄피해 지원대책 속히 이행하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8월 10일 “이달 초에 폭염 피해복구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주말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폭염과 가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의 고구마 폭염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고구마밭이 이렇게 넓은데 살수차 한 대로 물을 뿌려서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점적호스를 깔아 지속적으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광산구 평동 시설하우스도 방문해 폭염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김 회장은 “폭염 탓에 애지중지 키운 토마토를 뽑아내는 농민의 속은 몇번 뒤집혔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더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농협 임직원들이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마토 폭염 피해 농민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PHOTO STORY

1 2

① 폭우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병원 회장 ②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폭염피해 대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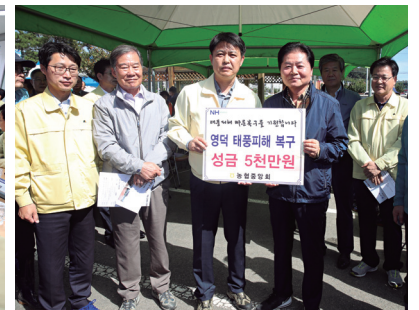


PHOTO STORY

3

4 5

- ③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평창군 진부면 고랭지 배추밭에서 현장대책회의를 마치고 물을 주고 있는 김병원 회장
- ④ 태풍 ‘솔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개최된 농협재해대책위원회
- ⑤ 김병원 회장은 태풍 ‘콩레이’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영덕군에 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태풍 ‘솔릭’ 피해복구 농협재해대책위원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8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주관하는 제7차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태풍 ‘솔릭’이 2012년 9월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함에 따라 농협은 농업부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태고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김병원 회장은 “올해 유난히도 자연재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업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신속한 복구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덕 태풍피해 농업인 위로

농협은 10월 8일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태풍피해 침수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농협은 이날 오전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제8차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 농업인 금융지원과 복구지원, 피해 농산물 판매지원, 재해보험금 신속지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영덕군에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한 김병원 회장은 “수확을 앞둔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태풍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보험 실질 도움되도록 최선 다할 것”

농협은 5월 31일 지난겨울 한파와 봄철 이상저온으로 조기 낙과 등 연 피해를 보고 있는 충북 충주지역 사과농가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범농협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원 중앙회장은 이날 김태종 충북농협지역본부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사과밭 피해현장을 둘러봤다. 김 회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농가들이 남아 있는 열매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일”이라며 함께 현장을 찾은 농협중앙회 관련 부서장과 농협계열사 대표 등에게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농가와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들은 김 회장은 “피해율을 낮게 산정해 보험금을 적게만 주려고 하다가는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면서 “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랭지배추 무름병 확산. “피해 최소화에 농협 역량 집중”

농협은 7월 27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고랭지배추밭에서 ‘이상기상 대응 고랭지채소 현장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확을 앞둔 배추의 무름병이 확산되는 등 산지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아 긴급 개회했다.

두일리 일대는 해발 600m의 고지대지만 심한 더위와 물 부족으로 배추에 무름병 등 피해가 10%가량 발생한 상황이다.

김병원 중앙회장은 “생산관리와 유통부문에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범농협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농약·비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배추 할인 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 산지농가는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 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점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4월 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우 사육 농가를 방문해 구제역 백신접종 현황을 점검하고,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현장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이날 오후 고양축협 방역상황실에서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방역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병원 회장은 “구제역 완전 종식의 핵심은 빠른 초동조치”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국 백신



PHOTO STORY



- ① 봄철 이상저온으로 조기 낙과 피해를 입은 충주 지역 사과농장을 방문한 김병원 회장
- ② 평창군 진부면에서 개최된 고랭지배추 이상기온 대응 현장대책회의
- ③ 구제역 백신접종 현장 점검
- ④ GAP 인증 농업인을 위한 농약방제복 무상공급

일제접종, 주기적인 소독, 예찰 등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차단 방역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협은 우제류 전업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책임공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정부와 협업체 고령농가 등에 접종 인력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예방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AI 등 특별방역체제 돌입

농협은 동절기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구제역, AI)에 대비하여 특별방역시스템을 10월부터 본격 가동해 오고 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농협은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지도 ▲SOP에 따른 각 계통기관별 행동요령 안내 ▲지역별 상시방역 실행 계획 보완·시행 및 전국 일제소독의 날 행사 실시 ▲현장 방역 인력풀 재 정비 및 방역대응 역량 강화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확대 운영 ▲가축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및 홍보활동 지도 ▲겨울철새 도래 관련 AI 차단방역 지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홍보·지도를 포함한 일선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농가 방역의식과 축산관계인의 차단방역이 가축질병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금년에는

구제역, AI가 원천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예산 및 인적자원 투입을 아끼지 않는 등 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AP 인증 농가에 농약 방제복 무상공급

농협식품연구원은 8월 22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GAP 인증농가 600 곳에 농약 방제복을 무상공급하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GAP 인증제도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날 공급한 방제복은 피부를 통한 농약 흡수를 막아 주는 것은 물론 방유, 방진, 정전기 방지와 통기성까지 갖춘 기능성 제품으로, 병해충 방제작업 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방현 농협식품연구원장은 “농협식품연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1호로 지정받은 대한민국 대표 GAP 인증기관으로서 전국 GAP 인증의 약 24%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농협식품연구원의 모든 GAP 인증농가에 농약 방제복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PHOTO STORY

① 도심녹화캠페인_울산지역본부

1

2

② 1회용품 감축을 위한 개인컵 사용 캠페인

울산농협, 식목일 맞아 도심녹화 퍼포먼스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울산생명의숲과 함께 도심녹화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4월 5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농협 울산지역본부 앞에서 도심녹화 ‘쿨(cool)벽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쿨벽 만들기’는 여름철 뜨거운 열을 식혀 줄 벽면녹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콘크리트 벽면을 덩굴식물로 덮으면 복사열을 막아 주고 광합성을 통해 물을 뿜어 줌으로써 도심의 온도를 내려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쿨벽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꽃모종과 꽃씨를 선물하기도 했다.

추영근 본부장은 “도심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 및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벽면녹화가 도심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다.

1회용품 감축 임직원 동참 캠페인 전개

농협은 7월 17일부터 전사적인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고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고,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된 1회용품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정해 실천 중이다.

주요 실천사항으로 사무실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및 개인용 머그컵·텀블러 사용, 각종 회의·행사 시 대용량 정수기와 다회용 컵 이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등 장비구니 사용 등을 정하고 임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향후에도 농협은 1회용품 감축운동을 명목상 지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각 계열사별 자체 점검반을 조직하고 1회용품 사용여부 및 감축 실태를 정착 시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20일 허식 부회장과 농협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머그컵과 에코백을 나눠 주며 1회용품 감축 임직원 동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직접 직원들에게 머그컵을 나눠 주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허식 부회장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1회용품 줄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직원들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 은 사

奉仕

작은 손길로 큰 보람을 키웁니다





2018년 이심점심(以心點心) 지원 및 농촌 일손돕기

“새참은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중식지원 사업과 같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농협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

고된 육체노동이 필요한 농사일은 하루 세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힘들어 아침과 점심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새참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이 새참을 준비해서 머리에 이고 들만까지 나오는 일이 여성에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살짝 바꿔서 마음으로 점심을 전한다는 뜻으로 차용한 ‘이심점심(以心點心)’- 농협은 (사)고향주부모임과 함께 ‘이심점심’ 농촌 일손돕기 및 중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점심(點心) 지원으로 농심(農心)을 되찾다

농협대구지역본부와 (사)고향주부모임 대구시지회는 2016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구 달성군 현풍과 구지, 유가 지역에서 농번기 중식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매년 6월이면 양파와 마늘 등 농산물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수확한다. 따라서 인력지원뿐만 아니라 농가와 농촌 일손지원 참여자들의 중식 지원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구농협 등은 농번기 농촌 현장의 열악한 중식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4일간 100여 명의 봉사자가 중식지원에 나선 것.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중식가격은 1,000원으로 정했다. 순수 국산 농산물로 만든 비빔밥과 한우로 맛과 건강을 챙기는 웰빙음식을 제공,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2014년부터 농협과 고향주부모임 대구시지회는 바쁜 농번기에 중식을 차려 내야 했던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금까지 1만8,000인분의 중식을 제공했으며, 1만 명 이상의 일손돕기를 실시해 왔다.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2018 이심점심(以心點心) 지원 및 일손돕기' 행사가 6월 5일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보건진료소 앞에서 열렸다. 농협과 (사)고향주부모임이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 중식조리와 배달을 시연하며 농업인 건강 증진과 영농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협과 고향주부모임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 시도에서 '이심점심(以心點心) 지원 및 일손돕기'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중식제공사업을 앞으로 고향주부모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협사업 자체가 농업인을 위한 봉사

농업인이 바빠지면 덩달아 농협도 바빠진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영농활동 중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인력을 꼽았다. 농협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협은 영농철 조합원들에게 비료와 농약을 공급하고 맞춤형 농자재를 보급하는 한편, 영농 차량 무상 점검과 농기계 수리 등 한 해 농사의 시작을 함께 준비한다. 그래서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풍년농사 지원 스타트업' 행사를 범농협 차원에서 전국 동시에 시작하고 있다.

2018년 행사에는 158개 시군에서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 5만여 명이 참여해 '풍년농사 지원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전국 951개 농·축협에 220억원 상당의 농기계 전달식과 대규모 일손돕기가 행해졌다.



PHOTO STORY

1 2

- ① 이심점심(以心點心) 지원 및 일손돕기에 나선 농협직원들
- ② 이심점심 현장에서는 민속놀이 공연도 펼쳐졌다.



PHOTO STORY

①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 업

전국서 풍년농사 지원 결의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농협은 4월 16일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영농 철을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 일손돕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농협은 “‘온 국민과 함께하는 농가소득 5,000만원의 시작’이라는 부제 아래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158개 시·군 5만여 명이 참여해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전북 익산시 삼기면 일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짐하는 상징의식과 함께 전국 951개 농·축협에 220억원 상당의 농기계 전달식 등을 갖고 대규모 일손돕기를 펼쳤다.

김 회장은 “전국 농협에 전달한 농기계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영농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만 명 ‘농가 일손돕기’ 총력. 300억 상당 농기계 지원도

농협이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전사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농협중앙회는 10월 12일 충남 예산 삼교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수확기 범농협 집중 일손돕기 발대식 및 발작물 농기계 전달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전국 1,009개 지역 농·축협에 파종기·트랙터 등 300억원 상당의 발작물용 농기계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2018년 상반기에도 220억원 상당의 농기계를 전달한 바 있다. 농협

PHOTO STORY

② 발작물 농기계 전달식에 참석 후 시운전을 하는 김병원 회장



중앙회는 2019년에도 농가들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역 농·축협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각각 600억원을 출연, 1,200억 원 상당의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회장,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황선봉 예산군수, 이재열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최우수고객, 서울 강동농협과 영등포농협 및 대전지역 농협의 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를 마치고 삽고읍 효림리의 고구마밭에서 농기계 작업 시연과 함께 고구마 수확 일손돕기도 실시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발작물용 농기계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농협, ‘풍년농사 지원’ 농기계 전달식

경북농협과 대구농협이 본격적인 영농 철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농촌 일손돕기 붐 조성에 나섰다. 두 기관은 4월 16일 칠곡군 북삼읍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서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농가소득 5,000만원의 시작’이라는 부제로 범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단체, 칠곡·달성군청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농업인의 풍년농사를 위해 힘써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열린 행사에는 여영현 경북지역본부장과 백선기 칠곡군수, 관내 조합장, 칠곡군청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달성군 유가읍 일대에는 이재식 대구 지역본부장과 김문오 달성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행사는 결의문 낭독,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 농기계 전달식(경북 36억원, 대구 4억원 상당)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풍년농사 지원을 위해 규산질 비료 살포작업과 폐비닐 수거, 마늘논 잡초 뽑기, 가지하우스 스프레이작업,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바쁜 농촌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농협 임직원 200여 명, 일손부족 농촌 총력 지원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농협이 전사적인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허식 부회장을 비롯한 중앙본부 및 충남지역본부 등 범농협 임직원 200여 명은 4월 17일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PHOTO STORY

3

③ 농협중앙회 임직원 봄철 농번기 일손돕기

4

④ 최우수 고객과 함께 한 농협은행 일손돕기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농협 임직원들은 배 과수농가에서 화점작업을 하며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했다.

농협은 영농 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농촌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범농협 차원에서 영농 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허식 부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와서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농촌의 소중함과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최우수고객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10월 18일 충주 내포긴들마을에서 최우수고객을 모시고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은행 최우수고객(VIP)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전 금융기관 최초로 최우수고객과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는 VIP 초청행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단순히 금전적·물질적 보상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내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대훈 행장은 “바쁜 시간에도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해 농심을 실천해 주신 최우수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00% 민족자본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농협은행, 수확 철 맞아 전사적 농촌 일손돕기 활동 전개

NH농협은행이 수확 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마을을 찾아 다니며 농번기 일손 보태기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은행 직원들은 10월 18일부터 자매결연 농촌지역을 찾아 다니며 ‘농촌 일손돕기운동’을 실시했다.

10월 31일에는 농협은행 최창수 수석부행장과 경영기획부문 직원들이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마을을 찾아 농산물 수확을 도왔다. 농협은행과 우정리 마을은 2016년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인연으로 교류를 시작한 이후 영농 철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 가고 있다.

최 수석부행장은 “수확 철 바쁜 농촌마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에 걸맞게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전국 곳곳에서 농촌 일손돕기 춘천·안성·양평 등서 비지땀

농협경제지주는 5월 25일 강원 춘천시, 경기 안성시, 양평군 등 전국 곳곳에서 임직원 100명이 농번기 부족한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산물판매부 임직원 40명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산천리 마을을 방문해 신북농협 직원들과 함께 인삼밭 차광필름 설치작업을 돕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작업용품을 전달했다. 인삼특작부 임직원 20명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옥장동 마을을 방문해 인삼꽃 제거 작업과 농가 환경정비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인삼특작부는 2016년부터 옥장동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일손돕기를 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식품사업부 임직원 40명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망미리 마을을 방문해 하우스 감자를 수확하고 옥수수를 심어 부족한 일손돕기에 나섰다. 또한,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어 영농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PHOTO STORY

1

2

① 일손돕기에 나선 최창수 수석부행장과 농협은행 직원들

②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곳곳에서 일손돕기에 나섰다.





PHOTO STORY

3
4 5

③ 하나로유통 임직원 일손돕기 현장

⑤ 난타와 함께 일손돕기에 나선 농협유통

④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풍년기원 농촌 일손돕기

농협하나로유통,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 실시

농협하나로유통 임직원 50여 명은 10월 29일 강원도 인제 원대리·덕적리·가리산리 등 3개 마을을 방문해 고추 지주대와 멀칭비닐 제거작업을 돕는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6년부터 3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일손돕기를 해 오고 있다.

이날 점심에는 작업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진행해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장을 위해 일손돕기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인 행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농협, 휴일 잇은 농촌 일손돕기

전남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현충일 휴일을 반납하고 농촌지역 일손돕기에 나섰다. 6월 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전남영업

본부, 농협 장흥군지부, 광양시지부, 순천시지부 등 임직원 200여 명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장을 찾아가 ‘영농 철 집중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광양과 순천시지역 매실농가와 장흥의 육묘장, 양파농가 등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영농 철이지만 정작 농촌에는 영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영농 철이 끝날 때까지 전남 농협이 양팔을 걷고 농촌현장에 일손을 적극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농협유통과 PMC(난타), 농가 돕기에 구슬땀

본격적인 수확 철이 다가오면서 농가에선 일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농협유통은 이수현 대표이사 및 임직원 30여 명과 난타로 유명한 공연예술 기업인 PMC프로덕션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여주시 별말마을을 방문해 고구마 캐기 및 마을 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별말마을 경준호 이장은 “고구마 수확이 늦어질 경우 상품성이 떨어



PHOTO STORY

① '팜커밍데이' 도농교류 일환으로 단감밭에서 일손돕기를 한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에 젊은 직원들이 일손을 도우려 와 생기가 넘치고,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고 농협유통과 PMC 임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팜커밍데이' 농촌 일손돕기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임직원 20여 명은 11월 4일 광양시 진상면 섬거마을 단감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했다. 이번 행사는 '팜커밍데이(Farm Coming Day)' 도농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다.

유해근 본부장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농촌을 방문하여 우리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농업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팜커밍데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가을 수확 철을 맞아 단감, 대봉감 등의 수확과 선별작업을 돕고,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경제지주 양곡부, '1사 1촌' 일손돕기

농협경제지주 양곡부 직원들이 4월 20일 서화성농협 관내 비봉마을을 찾아 영농 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경제지주 양곡부는 2004년 비봉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이후, 매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종합처리장 육묘장 묘판 상토작업과 마을청소를 하고, 비봉면 마을회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식을 갖기도 했다.

홍진기 서화성농협 조합장은 "매년 비봉마을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있는 양곡부에 감사

전하며, 영농 철 일손돕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택용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사1촌운동'은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기업 하나와 마을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 및 관광,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PHOTO STORY

② '1사1촌' 농촌마을 일손돕기_양곡부

도농협동 CEO리더 농촌 일손돕기 실시 도농협동교류단 현장 출범식도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은 10월 17일 경기도 양평 여물리마을에서 도농협동국민운동 MOU 단체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성남시지회 등 2개 단체 80여 명이 참여하는 ‘도농협동 CEO리더 어울림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일손돕기와 함께 도농협동교류단 출범식도 가져 앞으로 도농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전 일정은 ‘농업·농촌의 가치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밀랍양초 만들기 체험과,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이하여 고구마 수확 일손돕기, 깨끗한 마을 가꾸기로 마을정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오후에는 친환경농업과 지역 문화 이해를 위해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과 용문산 탐방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원복덕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성남시지회 회장은 “도농협동교류단 출범을 통해 생각에만 그쳤던 농촌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 보람이 컸다”고 말하고, “앞으로 도농협동과 교류 활동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도 어려운 농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발대

“낡고 오래된 경로당이 말끔하게 변했네요. 자주 이용해야겠습니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이 3월 8일 경기 부천에서 2018년 첫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오정농협 지역 내 약대동 경로당과 농가주택에서다.

이날 ‘사랑의 집 고치기’에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읍),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허식 농협

중앙회 부회장, 남창현 경기지역본부장, 이종근 (부천원예농협·농협중앙회 이사)·조원호 (오정농협)·최만자(부천농협) 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대동 경로당의 낡은 벽지를 화사한 벽지로 바꾸고 빗바랜 외벽에 페인트도 새로 칠했다. 천장의 오래된 전구도 밝은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로 교체했다. 이어 안마의자·혈압측정기 등 의료보조기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최정일 어르신(79·약대동)은 “농협의 도움으로 깨끗한 곳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정말 기분 좋다”며 활짝 웃었다. 봉사단은 대장동에 있는 노후된 농가주택 3곳의 개보수 작업도 완료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농협은 오정농협 약대지점

에서 ‘2018 농가희망봉사단 발대식’을 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2005년 결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은 13년 동안 홀몸 어르신·결손가정 등의 노후주택 597곳을 수리·보수했다.

“어르신, 말끔히 수리한 집에서 편안하세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농협중앙회·전남농협지역본부·보성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원 40여 명은 8월 13일 전남 보성군 보성을 봉산리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도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벽지·장판

PHOTO STORY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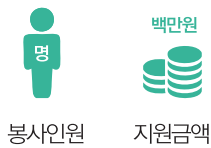
③ 도농협동 농촌일손돕기 도농협동연수원

④ 농협 농가희망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사랑의 집 고치기’에 나섰다.

⑤ 전남농협지역본부와 보성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의 ‘사랑의 집 고치기’



취약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현황



교체와 전기배선 작업을 하느라 비지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농가의 폭염 극복을 돕기 위해 일반 선풍기 20대, 휴대용 선풍기 200대, 생수 500ml들이 1,000병, 욕실용품 100세트, 라면 20상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유영관 보성군 부군수, 신경균 보성군의회 의장,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은 2005년 결성된 이후 14년 동안 128회에 걸쳐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616곳을 개보수했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로” 대학생 농촌봉사단 출정식

농협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6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학생 농촌봉사단 출정식이 열렸다. 이날 출정식에는 600명으로 꾸려진 대학생 농촌봉사단과 허식 농협

중앙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준병 서울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생 농촌봉사단은 서울지역 12개 농협의 지원을 받아 지난 5~6월 참가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생들로 구성됐으며, 방학이 시작되는 25일부터 5일 간 전국의 농촌마을로 흩어져 농촌 봉사활동과 함께 농촌마을 가꾸기를 진행하게 된다.

대학생 농촌봉사단은 결의문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등 농협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등 농업·농촌의 지킴이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식 부회장은 “고령화되는 농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대학생봉사단을 적극 지원해 온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새내기들 ‘봉사활동’으로 첫발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새내기들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생활

PHOTO STORY

1 2

① 대학생 농촌봉사단 출정식

② 농협은행 신규직원 농촌 봉사활동





PHOTO STORY

③ 농협은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원에서 위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첫걸음을 뗐다.

전남영업본부에 배치된 신규직원 11명은 4월 23일 N돌핀 대학봉사단원, 영업본부 직원들과 함께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노인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쌀 10kg들이 10 포대를 복지관에 기증했다.

박희선 신입사원은 “아침에 있었던 임용장 교부식이 끝나자마자 복지관으로 달려왔다”면서 “어르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쌀을 전하는 봉사활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돼 무척 뜻깊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유해근 본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신규 직원들이 나누고 돕고 함께하는 ‘협동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소외된 곳을 자주 찾아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현충일 국립대전현충원서 봉사활동 순국선열 비석 닦고 태극기 꽃아

(사)농가주부모임 대전시연합회와 농협 대전

지역본부 등 봉사단 70여 명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위령탑에 참배하고 5,000여 기의 비석 닦기 및 태극기 꽃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묘비를 닦고, 잡초를 제거하고 태극기를 꽃으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대전현충원 봉사활동은 2014년에 국립대전현충원과 1사 1묘역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현충원을 찾아 묘비 닦기, 잡초 제거,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전후하여 농가주부모임 10개 분회 봉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연간 정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보훈원에 생필품 전달하고 봉사활동

NH농협은행 최창수 수석부행장과 직원들이 6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보훈원을



PHOTO STORY

④ 대전 현충원 봉사활동_농가주부모임 대전시연합회



PHOTO STORY

1 2

① 제주 4.3 평화공원 봉사활동_제주 서귀포시지부

② '1004 봉사단' 나라사랑 봉사활동_NH농협은행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훈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양육·양로보호와 자활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가보훈처 산하 복지시설이다.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이날 위생장갑, 물티슈 등이 포함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식사 보조, 휠체어 산책, 요양·양로시설 내·외부 환경 미화 등의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최창수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 은행에 맞게 전 임직원이 계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 서귀포시지부 4.3봉사활동

농협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와 (사)농가주부모임 서귀포연합회 회원 등 40여 명은 3월 25일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4.3평화 공원에서 4.3의 진실을 이해하고 희생자와 아픔을 함께하고자 평화 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닦기 봉사활동을 펼친 뒤 헌화하고 참배했다. (사)농가주부모임은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농가 주부의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1004 봉사단’, 나라사랑 사회공헌 활동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1004봉사단’이 6월 20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아 길거리 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전직원들은 매월 1구좌에 1,004원씩 자율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농업인을 찾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봉사단의 이름이 ‘1004 봉사단’이다.

앞선 5월 서울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미혼모 아동을 위한 봉사 활동 및 봉사단 기금으로 미혼모의 아동용품 구입을 위해 후원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바 있는 ‘1004 봉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독립문역 사거리부터 안산 입구까지 서대문독립공원 주변 길거리 정화활동을 하며 자그마한 ‘나라사랑’을 실천했다.

호계실버타운에서 효사랑 봉사활동

NH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임직원들이 11월 8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호계실버타운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디지털금융부문 임직원 20여 명은 일일 식사 도우미를 자처하여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돕고,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또한 요양원 시설청소와 환경정비 등을 함께하며 온 직원이 구슬땀을 흘렸다.

주재승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은 “7년 연속 사회공헌 활동 1위 은행으로서, 봉사활동을 연말·연시 등 특정 기간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자생의료재단, 한방의료봉사

농협은 농촌마을을 방문해 한방의료봉사와 함께 청소, 마당 가꾸기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힘을 합쳐 농촌사랑을 실천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도농협동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에서는 6월 5일 도농협동국민운동 MOU단체인 자생의료재단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푸르네마을을 방문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 활동은 아름다운 농촌경관 유지·발전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자생의료재단은 노인정 및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 마당 가꾸기, 꽃화분 심기 등을 실시했으며, 마을 어르신 분들께 삼계탕을 대접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자생의료재단 의료진 10여 명은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휴일도 반납한 채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

농협재단이 5월 19일 일손이 부족한 영농 철을 맞아 자매결연 마을인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1리 마을에서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협재단 직원과 장학생 봉사단 60여 명은 휴일도 반납한 채 오전에는 포만 나르기 작업과, 오후에는 빈 농약병과 폐비닐 수거 작업을 하는 등 농번기 일손돕기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하도1리 마을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보행기(실버카) 5대를 전달하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주민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PHOTO STORY

3
4
5

③ 호계실버타운 효사랑 봉사활동_NH농협은행

④ 농협은 자생의료재단과 농촌마을에서 한방의료봉사를 펼쳤다.

⑤ 휴일을 반납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나선 농협재단 직원들





PHOTO STORY ①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NH농협은행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

NH농협은행 HR·업무지원 및 신탁부문 김연학 부행장과 직원들은 5월 28일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HR·업무지원 및 신탁부문 직원들이 직접 모금을 통해 준비했고, 사랑의 쌀 전달과 함께 복지관 청소 등의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한편 HR·업무지원 및 신탁부문 직원들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2012년부터 자매결연을 통해 인연을 맺어 왔고, 직원과 가족들은 매월 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인삼연구소, 금산 장애우학교서 주말봉사활동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직원 8명이 9월 19일 충남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에 있는 장애우평등학교를 찾아 학교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변 환경정리를 돕는 등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애우평등학교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 지체장애·뇌병변 등 중증장애가 있는 장애인 20여 명을 교육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농협 충남지역본부에서는 2012년부터 '사랑의 천사운동' 기금으로 전기밥솥과 쌀·라면 등을 구입해 학교에 전달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장병호 교장은 "장애우들이 주변 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농협 직원들이 찾아와 정성껏 도와줘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직원들은 "오늘 흘린 땀 이상으로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PHOTO STORY ② 주말을 이용해 금산 장애우학교서 봉사활동을 펼친 인삼연구소 임직원



동행

同行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1주년

외로운 어르신의 안부에서 안전까지 책임지다

이 땅의 고령 농업인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묵묵히 뒷받침하고, 5,000만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 안부전화에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의 연락이 아들딸의 전화와 같은 기쁨으로 농촌 어르신에게 전달되어 고달팠던 이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고대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번호
1522-5000번

“혼자 살고 있어 외롭고 몸도 아파 많이 힘든데 직접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말벗도 해 줘 힘이 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고장난 지 20년이 넘는 보일러를 바꿔 주고 청소도 해 줘 이번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나고 있어요. 또 김장김치도 보내 줘 잘 먹고 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2019년 새해 첫 현장경영으로 서울 용산에 있는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영암군 군서면의 한 고령 농업인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다.



PHOTO STORY

1 2

① 행복콜센터 1주년 기념식

② 농촌 어르신과 전화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으며 말벗 도우미를 하고 있는 김병원 회장

2016년 말 현재 70대 이상 농업인 조합원은 37%(83만여 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돌봄 대상에 해당하는 70대 이상 농업인 조합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촌에 사는 어르신은 '외로운 섬'이나 다름없다. 지역 특성상 타인과의 교류가 적으니 급히 도움이 필요해도 청할 곳이 마땅찮다. 농협이 고령 농업인의 손과 발이 되어 줄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만든 이유이다.

연간 193억에 달하는 가치 창출

지난 2017년 9월 21일 문을 연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접수·안내하고, 특히 전국의 1,131개소의 농·축협을 통해 신청을 받은 돌봄대상자를 대상으로 말벗서비스 등의 정서적 위로와 자원봉사자, 돌봄도우미 방문 연계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 위기 발생 시 112·119 등 긴급출동 요청 등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기지'나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콜센터의 대표번호인 1522-5000번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여지를 담아 선정되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행복콜센터 전담 상담원들은 어르신들과 매일 5,000건 이상의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고, 사소한 생활불편 문제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처음에 1만2,814명으로 시작한 돌봄어르신이 지금은 10만 명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농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돌봄 대상자 10만명 돌파

농협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연간 193억8,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경영연구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향후 5년간 경제적 가치는 889억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 현재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농협은행 용산별관에서 남산트라펠리스타워로 사무소를 확장 이전 하면서, 10명의 상담사에서 20명으로 증원된 인력으로 통해 더 정확하고 빠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식 부회장은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농촌사회 사회안전망 역할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단위: 명)

무료의료 지원사업
21,615



무료법률 구조사업
3,849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지원
218



농업인 소비자
보호사업
19,971



농업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22,382



농업인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11,285



농촌지역 다문화
여성대학 운영
474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117



행복 도우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농협 인천지역본부 농촌현장지원단은 6월 21일 강화군 길상면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NH네트웍스와 함께 장애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길상면에 홀로 거주하는 한 청각장애인의 집 도배와 장판, 싱크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 조영철 농협 인천지역본부장은 “농가 고령화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촌현장지원단 활동으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행복콜센터 전용 전화기 기증

농협과 LG유플러스는 7월 24일 광화문에서 ‘농업인 행복콜센터’ 전용 전화기 1만 대를 기증하는 행사를 갖고 농촌 취약계층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 행복콜센터’와 ‘농촌현장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촌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기증이 생명창고를 지켜 오신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홀몸어르신 등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돌봄 대상으로 등록하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위로와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접수받아 돌봄 도우미·봉사단체·전문업체 등과 연계하여 일상에서 겪는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농업인 행복콜센터’ 돌봄 대상자 중 취약농가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PHOTO STORY

①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농협 인천지역본부 직원들



PHOTO STORY

2

3

4

- ② 2018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
- ③ LG U+는 농업인 행복콜센터 전용 전화기를 기증했다.
- ④ 백령도 농업인 행복버스에 참여한 김병원 회장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담조직인 '농촌현장지원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2018년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3월 14일 전북 장수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의료·법률·문화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8년도 농업인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법률상담, 농기계 무상점검, 문화예술 공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86개 지역을 방문해 농촌

어르신 6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2013년부터 농협이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행해 왔으며, 올해로 6년째로 그 수혜자는 그간 302개 지역 2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사업은 고대안암병원과 처음으로 업무 협약을 맺고 시작했으며, 고대안암병원은 발대식에 정형외과, 재활 의학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내과), 치과 등 다양한 의료진이 동참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첫 사업을 장식했다.

백령도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농협은 6월 11일 인천 백령도에서 지역 농업인 및 어르신을 대



PHOTO STORY

1 2
3

- ① 농업인 행복버스의 장수사진 촬영 장면
- ② 말벗서비스 사랑나눔 행사_NH농협은행
- ③ 여성 농업인 행복농담(幸福農談)

상으로 농촌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에는 백령농협과 인천힘찬 병원 의료진 20여 명이 함께했으며, 백령도 내 농업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X선 촬영, 무릎·허리치료,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의 의료지원 형태로 이뤄졌다. 농협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접경지역인 백령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12일에는 최북단의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위문금품도 전달했다.

농업인 행복버스… 돋보기안경 제공

제주 하귀농협이 9월 14일 하귀농협 복지센터 내 5층 웨딩홀에서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65세 이상 조합원 300여 명이 방문해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혈액검사 등 의료지원을 받았다. 또 시력을 측정한 후 돋보기안경도 제공받았다. 하귀농협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왔다. 하귀농협 김창택 조합장은 “지역 내 고령 어르신들께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말벗서비스 사랑나눔 행사

NH농협은행은 11월 20일 우리농업지키기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충북 음성군 음성농협에서 말벗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위한 ‘2018년 말벗서비스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말벗서비스는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인사 및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각종 생활정보, 금융사기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에서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은 어르신들에게 네일아트와 머리 손질 등을 제공했으며, 즉석에서 찍은 사진을 나눠 드리기도 했다. 또 겨울을 보내기 위한 이불도 증정했다. 이 밖에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따로 마련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동영상을 보여 주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여성 농업인들 영농자금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할 것”

여성 농업인 행복농담(幸福農談)

“담보로 잡힐 재산이 없어 농협에서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5,000만원이 필요했는데 3,000만원만 빌려 줬습니다. 대출받으려 가면 안된다고 할까 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성 농업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행복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1억원까지는 담보 없이 신용도만 보고 대출을 해 줍니다. 농협사업 이용실적 등에 따라 5,000만원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김행준 농협중앙회 상무금융기획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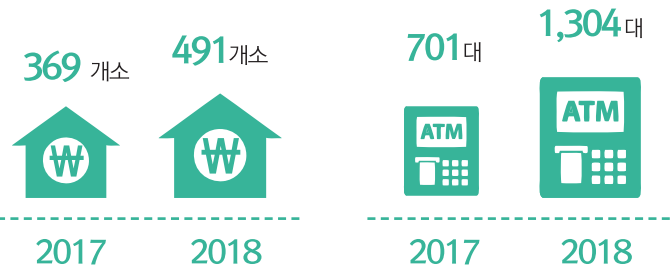
2018 농촌·독거어르신 말벗서비스

전체 통화 건수 **61,223** 건



장애인 금융 자동화기기 공급현황

단위: 개소, 대수



3월 13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농협이 개최한 ‘2018 여성 농업인 행복농담(幸福農談)’에서 솔직담백 농담토크가 시작되자 여성 농업인들은 농촌현장에서 겪은 애로를 늘어놨다. 특히 농가 경영비 절감, 농산물 판매 확대, 영농자금 대출문제 등에서 농협에 대한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냈다. 이날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중년 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청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회원 등 1,000명이 넘는 여성 농업인이 몰렸다.

사회를 맡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촌현장에서 대출문제에 대해 농업인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회장 취임 후 농업인들이 농사자금을 조금이라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히 여성 농업인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한 시설 농가는 “농협에서 대형 농기계만 임대해 줘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며 “소형 농기계도 구입해 빌려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용식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장은 “여성 농업인들의 고충을 반영해 소형 농기계도 임대사업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진 특강에서 “그동안 농협이 농업인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불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농업인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생명사랑’ 헌혈 사회공헌활동 펼쳐

NH농협은행은 4월 13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사랑나눔 행복채움’ 실천을 위한 ‘생명사랑’ 헌혈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대훈 은행장과 본점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으

며, 헌혈 후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하기로 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한편, NH농협은행과 대한적십자사는 같은 날 농협은행 본사에서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NH농협은행과 대한적십자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및 생명보호 운동, 긴급구호활동 등을 함께하여 나눔의 참뜻을 드높이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농협은행은 2018년 한 해를 ‘NH 사랑나눔 행복채움 릴레이’ 기간으로 선포하고, 4월 ‘생명사랑’, 5월 ‘이웃사랑’, 6월 ‘나라사랑’ 등 월별 테마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PHOTO STORY

④ 헌혈운동에 동참한 NH농협은행 직원들

농업인 소비자 권익 보호사업 이동상담실 운영현황

(단위: 명, 회수)



교육인원



개별상담인원



실행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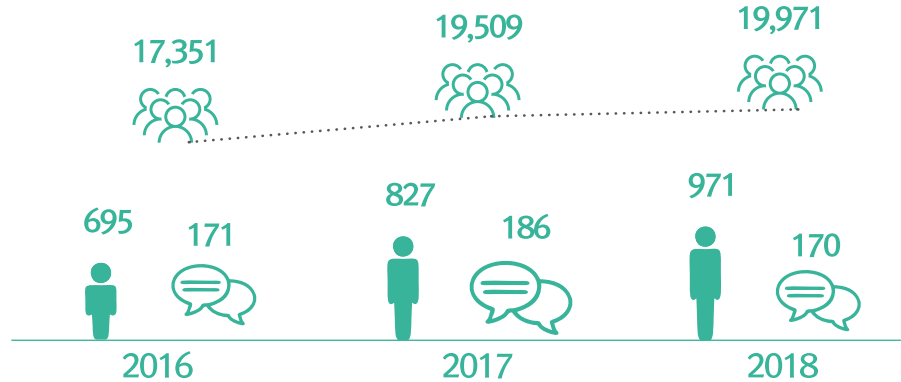


PHOTO STORY

1
2

- 1 NH농협카드는 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에 공익기금 5억원을 전달했다.
- 2 농협-고려대 안암병원 농촌사랑 사회공헌 협약식



NH농협카드, 농촌사랑운동 후원

NH농협카드는 8월 16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농촌사랑운동 확산을 위해 'NH농협카드 공익기금' 5억원을 (사)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농촌사랑운동'은 도시 소비자 및 각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 실천운동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상생운동을 말한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NEW농촌사랑 체크카드'와 '농촌사랑 클럽 체크카드'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NH농협은행에서 자체 적립해 조성한 공익기금으로, (사)농촌사랑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고려대 안암병원, 농업인 건강증진 위해 맞손 농업인 행복버스 연계 종합병원 수준 진료 추진

농협중앙회는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에서 고려대 안암병원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사랑 사회공헌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식 농협 부회장과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을 비롯해 농협 임직원과 병원 의료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기관은 '농업인 행복버스'와 연계해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정형외과·재활의학과·치과·이비인후과·내과 등을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 농촌지역 취약농가 주택수리, 휴가철 농촌체험마을 이용 활성화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PHOTO STORY

3

4

③ 농협 농기계센터 직원들

④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봉사_서귀포농협



전국적인 농기계 무상점검 실시

농협은 3월 12일부터 전국 농협 농기계센터 569곳에서 농업인이 보유한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무상점검은 브레이크, 유압 등 2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농업인은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품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 △농기계 고장 발생원인과 예방 조작법 △응급처치 방법 △농기계 보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농협은 농기계센터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지역별 순회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사용하고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영농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농기계 무상점검 봉사

서귀포농협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상효동, 모복동, 서홍동 등 지역 내 영농회를 대상으로 농기계 무상점검 및 순회수리 봉사를 전개했다. 또 9월에도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원거리 조합원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히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서귀포농협의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리 및 점검 등을 통해 조합원의 영농편익과 실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 및 부품비 5,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 농업·농촌 지원활동

농업 실익사업 무이자 및
저리자금 지원

11.2 조원



농업정책자금
2018년 신규대출

7.1조원



농업인 신용보증지원
(2018년말 잔액)

14.9조원



농식품 기업 자금지원
(2018년말 잔액)

20.9조원



취약농가 생활안정 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40,604가구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돌봄대상자 51천명
돌봄도우미 24천명





PHOTO STORY

1	3
2	
4	5

- 1 NH농협카드는 다애다문화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 2 다문화가정 특산물 가공 실습교육_농가주부모임 전북도연합회
- 3 농협 인천지역본부는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 항공권을 전달했다.
- 4 5 '우리말 도전 골든벨'에서 금상을 받은 중국에서 온 왕효로 씨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후원금 전달

NH농협카드는 12월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다애다문화학교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다애다문화학교는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다. 현재 서울시내 중학교에서 위탁된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NEW농촌사랑체크카드'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자체

적립해 조성한 카드공익기금으로 마련했다. 언어로 인해 학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학생들의 다문화 특성을 계발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특산물 가공 실습교육

(사)농가주부모임 전북도연합회는 전북농협과 함께 10월 6~13일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 가공 식품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특산물 가공식품 실습교육은 농협에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기초농업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의 교육 호응도가 높은 식품 실습교육을 특화한 프로그램이다.

총 3회 실시된 이번 교육은 1회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수박물김치·양배추백김치·잡채 만들기, 2회차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에서 고구마를 이용한 케이크·라떼 만들기 실습, 3회차 순창고추장익는 마을 방문, 블루베리파이·쇠고기양념고추장 만들기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체험했다.

필리핀에서 온 프롤델리자 씨는 “이번 실습교육에서 잔치음식인 잡채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추석에는 직접 잡채를 만들어 가족들을 대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문화여성의 모국방문 지원

농협 인천지역본부는 5월 9일 강화군 농협에서 다문화여성 3가정 11명에 항공권과 체재비, 여행자보험,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선정된 이들은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 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선발된 가운데, 시부모를 봉양하거나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다.

초등생 두 딸과 시어머님 등 5식구의 살림꾼으로 이웃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민자 부이티탕마이 씨는 “오랜만에 농협의 지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고 기뻐했다. 조영철 인천지역본부장은 “농촌지역으로 시집온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 간의 행복과 사랑을 다지고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정착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우리말 도전 골든벨’

(사)농가주부모임 경남도연합회는 경남농협과 함께 7월 17일 경남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말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우리말 도전 골든벨’은 역사적 인물, 유적, 상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문제를 참여자에게 사전 배포하고 50문제를 선정해 질문하는 퀴즈대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11개국 130명이 참가해 패자

부활전을 거쳐 호로이와데루코 씨와 왕효로 씨가 최종 2인으로 남아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대상은 중국에서 온 왕효로 씨가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왕효로 씨는 “항상 가 보고 싶은 고향을 방문해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43인치 TV와 가족이 고향에 갈 수 있는 항공권과 경비가 지원된다.

육군에 도서 전달, ‘식량 안보’ 중요성 특강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8월 10일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위드하러’ 도서 1,500권을 전달했다. 이 책은 각종 비리와 갑질행태, 왜곡된 자본주의로 인한 고질적인 사회병폐가 국가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금, 자본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동’ 가치를 실현해 가는 협동조합적 경영원리를 해법으로 보여 주고 있다.

김 회장은 150여 명의 위관급 이상 장병들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김 회장은 진정한 리더의 조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사고와 사상으로 무장하며,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담보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OTO STORY 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하고, 특강을 통해 농업의 미래가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PHOTO STORY

① 설맞이 해병대 위문행사_도농협동연수원

해병대 장병 위문하며 ‘도농공감’ 연수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은 2월 13일 해병대 제2사단 5317부대 군장병 200여 명과 함께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및 설맞이 위문 ‘도농공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군장병들이 국방안보와 함께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공감하고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농협동국민운동 MOU 단체인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및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10여 명도 함께 참석했으며, △‘농업의 소중한 가치’ 특강 △ 위문공연 △ 우리 농산물 위문품 전달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독거, 치매어르신과 나들이... ‘행복한 동행’

농협유통 하나로봉사단과 하나로 자율방범대원 20여 명은 6월 1일 가평 이화원과 춘천 남이섬에서 ‘행복한 동행’ 행사를 치렀다. 이번 행사는 외부 활동이 어려운 관내 독거어르신 및 고위험군 치매 어르신을 70여 명을 모시고 함께하는 나들이가 되었다. 농협유통 하나로봉사단 및 하나로 자율방범대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몸이 불편 하신 어르신들을 부축하여 가평 이화원의 열대식물과 다양한 나비들을

보고, 춘천 남이섬의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른 더위를 식혔다.

농협유통은 올해 9회째를 맞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잠시나마 행복을 드리고, 나들이를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PHOTO STORY

② 독거·치매어르신과의 행복한 동행_농협유통 하나로봉사단

교류

交流

오며 가며 차곡차곡 정을 쌓습니다.





고향주부모임 · 농가주부모임 농산물펀드 구매대금 전달식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아름다운 거래

앞으로도 농가소득 5,000만원과 도농교류의 역할을 위해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이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단체가 서로 협력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서 도농상생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_ 고향주부모임 김영옥 회장과 농가주부모임 강부녀 회장

도농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농산물펀드

이제 도시와 농촌이 농산물펀드를 통해 농사를 함께 짓는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졌다. 농업인에게 직접 투자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돌려받는 농산물펀드 구성에 여성들이 앞장선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두 단체의 농산물펀드 사업은 복숭아, 체리 등 지역별 특산물을 중심으로 현재 30명의 농가주부모임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고향주부모임 소비자 3,231명이 참여해 총 1억원의 펀드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모임인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이 농산물펀드 구매대금 1억원을 생산자 단체인 (사)농가주부모임에게 전달하는 구매대금 첫 전달식 행사가 2017년 8월

9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원 회장은 “농산물펀드 사업은 소비자와 생산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 협력하는 모범사례”라며 “농협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를 중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펀드 조성을 여성의 힘으로

농산물펀드 구매대금은 고향주부모임 회원 3,231명이 1인당 2~5만원을 모아 조성해서 농가주부모임 회원 30여 명에게 계약재배용으로 사전에 지급한다. 펀드 자금을 선지급받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옥수수 · 복숭아 · 체리 · 파프리카 · 마늘 · 양파 등 자신들이 직접 농사지는 농산물을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에게 택배로 배송한다. 특히 공급 품목에 양파 · 마늘이 포함되면서 당시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병원 회장은 “농산물펀드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면 농업인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도농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도농이 상부상조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펀드조성 2년 차인 2018년 7월 6일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18 농산물 펀드 구매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는 고향주부모임이 조성한 농산물펀드 구매대금 5억원을 여성 생산자 단체인 농가주부모임에 전달했다. 이날 고향주부모임 김영옥 회장은 “이번 농산물펀드 사업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농촌과 농협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펀드로 도농상생의 새로운 발판 마련

농산물펀드는 도시민들에게 자금을 투자받아 농업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자금으로 농업인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생산된 농산물을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돌려 주는 개념이다. 농산물펀드 조성을 통해 농가주부모임 회원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농산물펀드 조성에 참가한 고향주부모임 회원은 우수한 제철 농산물을 공급받아 도농상생에 앞장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농협에서 육성하는 생산자 · 소비자 여성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차원에서 이뤄짐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PHOTO STORY

1 2

① 2018년 7월 고향주부모임은 농산물펀드 구매대금 5억원을 농가주부모임에 전달했다.

② 농산물펀드, 농촌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기여하는 등 도농상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PHOTO STORY

① 도농교류의 날 맞아 펼쳐진 낭만농촌 페스티벌

도농교류의 날 맞아 농촌여름휴가 캠페인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농협은 7월 6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도농교류의 날(7일)을 맞아 ‘농촌으로 여름휴가 떠나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산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6회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도시민이 여름휴가를 농촌에서 보내도록 농촌관광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올여름 농촌과 함께하는 낭만농촌 페스티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공동체험장·정책홍보관·체험존 등 농촌관광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부스가 다양하게 마련돼 도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정호영 경북대병원장과 지북남 전남 완도 청산농협 조합장(개인), LG유플러스와 고향주부모임(단체) 등은 정부포상을 받았다.

행사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병원 농협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이 미래다’ 귀농·귀촌박람회

농협은 7월 19~21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8 K-FARM 귀농·귀촌박람회’를 개최했다. ‘농업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선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총정리해 제공했다. 귀농·귀촌의 8단계 정보를 담은 대형



PHOTO STORY

②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8 K-Farm 귀농·귀촌박람회’

안내판을 설치하고 최신 농업 트렌드와 농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 실패하지 않는 귀농·귀촌 등을 주제로 포럼이 매일 열렸다. 특히 건강한 농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참가업체들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던 이번 전시관에는 ▲귀농·귀촌상담관 ▲귀농·귀촌지원관 ▲전원주택관 ▲치유농업관 ▲스마트농업관 ▲농부시장 등 6개 테마를 주제로 모두 393개 부스가 설치됐다.

NH농협은행, '또 하나의 마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NH농협은행 올원뱅크사업부와 개인고객부 직원들이 11월 7일 '또 하나의 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올원뱅크사업부 강태영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에 위치한 구암마을에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갖고 강태영 부장을 명예이장으로, 직원들을 명예주민으로 임명했다. 또한 마을회관에 노래방 기기를 전달하고, 인근 농가를 찾아 가지 수확과 폐비닐을 정리했다.

한편, 9일에는 개인고객부 이성섭 부장과 직원들이 '또 하나의 마을'인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맹골마을을 찾아 고구마 수확과 농산물 구입행사를 실시하고, 미리 준비해 간 삼계탕과 김치로 마을 주민들과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 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점차 활력을 잃어 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NH농협생명, 외암마을 찾아 벼짚 엮기 등 봉사

NH농협생명 임직원 30여 명이 10월 30일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을 찾아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강태호 전략총괄부사장을 비롯한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은 마을 주민과 초가지붕 수리를 위한 기초작업인 벼짚 엮기를 함께하며 가을철 부족한 일손을 보탬다.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초가지붕에 새 이엉을 이는 작업은 매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농촌의 필수작업이다. 이엉이기는 짚·역새·산죽 등을 엮어 만든 지붕재료 또는 그 지붕을 교체하는 것으로 주로 벼짚이 활용된다.

NH농협생명과 외암마을은 2016년 11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협약 체결 후 지속적으로 도농교류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외암민속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236호)로 상류층 가옥과 서민층 가옥 등 전통한옥 60여 채가 조선 후기 중부지방의 향촌 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살아 있는 민속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PHOTO STORY

- ③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과 일손돕기에 나선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사업부 직원들
- ④ 외암마을서 벼짚 엮기 봉사활동_NH농협생명

3 | 4





PHOTO STORY

1
2
3

- 1 NH투자증권 후문 주차장에서 펼쳐진 '또 하나의 마을 장터' 농산물 직거래 행사
- 2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과 일손돕기에 나선 농협경제지주 임직원
- 3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도농교류 행사_농협 회원경영 컨설팅부

NH투자증권,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NH투자증권은 9월 11일 NH투자증권 본사 후문 주차장에서 자매 결연을 맺은 마을과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마을 장터'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NH투자증권과 자매결연을 맺은 충주 소용마을 사과와 안성시 일죽면 울동마을의 포도, 대전시 유성구 계산마을의 신고배를 직거래 판매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마을'은 대표이사 및 임원을 '명예 이장'으로 위촉하고, 직원은 '명예주민'으로 참여해 농업인들과 상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도농협동에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이다. 현재 NH투자증권은 29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또 하나의 마을 장터"는 소비자와 농가가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또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어려워진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농협경제지주 사업지원본부 임직원, 농촌 일손돕기 활동

농협경제지주 사업지원본부 임직원 30여 명은 5월 31일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리에서 '또 하나의 마을' 명예이장 위촉식을 갖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조완규 사업지원본부 상무가 개운리 명예이장으로, 자재부·재생에너지부·식품사업부·식품연구원 임직원이 마을 명예주민이 되어 지속적인 교류와 마을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농협 명예주민과 마을 주민은 오찬을 나누며 농심을 공유하고, 마을 주변 환경개선과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김완수 면장은 "농협과 개운리가 '또 하나의 마을' 주민으로 맺어져 도시와 농촌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운동 꾸준히 이어져 회원경영컨설팅부, 홍천 수유동마을과 교류 약속

강원 홍천군 내면 방내리 수유동마을과 농협중앙회 회원경영컨설팅부가 6월 12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동참해 교류활동을 벌였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는 기업·단체 대표를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토록 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추진하는 농협의 운동이다. 이날 김운기 내면 면장은 김기형 회원경영컨설팅부 부장에게 명예이장 위촉패를 전달했으며, 회원경영컨설팅부는 마을에 2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증했다.

이날 회원경영컨설팅부 직원 20여 명은 마을 대파밭 잡초제거 등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거들고, 주민들이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면서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PHOTO STORY

④ 도농협동 농촌체험단 발대식

“농촌으로 떠나자” 도농협동 농촌체험단 발대식

농협은 4월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앞 광장에서 ‘2018 도농협동 농촌체험단’ 발대식을 열고 농촌체험관광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유찬형 상무, 채형석 농협네트웍스 대표, 홍순철 인천축협 조합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영옥 고향주부모임 중앙회장, 이성희 한국새농민중앙회장, 김탁순 한국팜스테이중앙회장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농협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서울시, 코레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농협,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농협 인천지역본부는 7월 13일 계양구청

광장에서 여름 피서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황인호 계양농협 조합장과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 최재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인천시회장, 전국팜스테이협의회 인천시회와 인천농협 직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인천농협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농촌관광 홍보 리플릿과 친환경 장바구니, 부채 등을 나눠 주며 “팜스테이 등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고 권유했다. 조영철 인천농협 본부장은 “장마와 수해로 침체된 농촌 팜스테이 마을에 많은 도시민들이 방문해 다양한 농촌체험을 하고 지역 농·축산물을 맛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PHOTO STORY

⑤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_농협 인천지역본부



PHOTO STORY

① 고향주부모임은 2월 정기총회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과 농업가치 헌법 반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은 2월 20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위해 고향주부모임이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김영옥 주부들의모임 회장은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소비촉진운동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고향주부모임을 전국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은 여성의 자주·자립·협동정신을 고취시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복지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단체이다. 여성 복지 증진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건전한 소비활동, 환경보호활동, 안전식품 확보 및 농도교류사업, 농산물 직거래사업, 여성단체 간 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고객과 함께하는 감귤수확체험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11월 29일 고객 30여 명을 초청해 조천읍

소재 농가에서 감귤수확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는 고객과 함께하는 공익적 활동, 사회적 금융 실천, 도농교류 등 농협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 주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또한 감귤수확 체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직접 수확한 감귤을 지인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기회였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행복어울림’

NH농협생명이 7월 19일 서울지역 우수고객 및 동반자녀 40명을 초청해 경북 문경에서 농촌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초청행사는 도시지역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 농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심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 고객들은 풍란 묘목 심기, 연근 말리기 등 농촌 일손돕기를 겸한 체험행사를 경험했다.

또 나만의 풍란 만들기 체험, 오미자 테마터널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농촌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모산성 둘레길 탐방 및 다슬기 채집 체험을 통해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속 힐링도 경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고객은 “아이에게 농촌의 여러 모습을 보여 주고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여러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한 만큼 도시에 돌아가서도 농촌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이 8월 28일 제주시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연에서는 합창단이 평소 ‘주경야음(晝耕夜音)’으로 갖고닦은 10여 곡을 선보였다. 또한 4·3평화합창단과 제주인챔버, 소프라노 최윤덕 씨가 협연해 의미를 더했다.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은 2011년 농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주 농협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단한 전국 유일의 농협 직원 합창단이다. 퇴근 후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지역과 농업인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재능기부 등의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앞둔 7월 7일에는 지역 요양 시설인 정효원을 방문,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하모니를 선사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군악대 연주에 농업인들 함박웃음. 행복한 봄날 작은 음악회

“농촌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5월 10일 저녁, 충남 논산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3층 행복모음카페 하늘정원. 이곳에 모인 지역주민들은 군악대의 악기 연주에 감탄사를 쏟아내며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연무농협이 마련한 ‘행복한 봄날의 작은 음악회’에 육군훈련소 군악대가 악기 연주와 춤·노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것이다.

34명으로 구성된 군악대는 지휘자의 지휘 아래 트럼펫·클라리넷·색소폰 등 관악기와 드럼·전자기타 등으로 감미로운 곡을 연주하며 청중들을 따뜻한 감흥에 젖게 했다. 이들이 연주 중간에 춤과 노래를 부르며 ‘젊음의 끼’를 발산할 때는 모든 청중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 농업인은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음악회는 농사

PHOTO STORY

2	3
4	5

② 고객 초청 감귤수확 체험_NH농협은행 제주본부

④ 농업인을 위한 하나로합창단 정기 연주회_제주농협

③ 우수고객과 자녀 초청,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행복어울림’_NH농협생명

⑤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한 봄날의 작은 음악회’ 군악대 연주_농협 충남지역본부



일에 지친 농업인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육군훈련소 군악대가 이곳에서 음악회를 연 것은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연무농협과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자매결연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평창 올림픽 선수단에 격려금 전달

농협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2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훈련에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선수단에 격려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선수촌을 방문한 김병원 회장과 이대훈 농협은행장 등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평창 올림픽 준비 현황을 논의한 뒤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선수촌 식당에서 지도자와 선수들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지며 진천 선수촌 주요시설과 선수단 훈련 모습을 지켜봤다.

김병원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평화와 안전 속에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하는 농협이 평창 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농협의 소중한 정성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서귀포시지부, 클린데이 행사 열어

제주유나이티드FC와 농협서귀포시지부는 5월 29일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농촌사랑, 축구사랑’이란 슬로건으로 합동 클린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제주유나이티드FC의 우승을 기원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농협 서귀포시지부는 전 직원 연간회원권 구매, 홈경기 관람

PHOTO STORY

①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한 김병원 회장





PHOTO STORY

2 3
4

- ② 제주유나이티드FC와 농협 서귀포시지부는 '농촌사랑 축구사랑' 합동 클린데이 행사를 가졌다.
- ③ 평창 동계올림픽 범농협 응원단 발대식
- ④ 농협은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전을 기원하며 1억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응원, 주기적으로 월드컵경기장 클린데이 행사, 홈경기 시 선수 유니폼 입고 응원하기, 객장 내 경기일정 및 응원 피켓 부착 등으로 제주농협 응원문화를 매년 이어 오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범농협 응원단 발대식

농협은 2월 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농업인 및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응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농협은 조합원 1만여 명의 참가 신청을 받아 응원단을 결성했다. 응원단은 특히 대회 참가 국가 중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응원단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 혹은 팀을 위해 나라별 단체응원을 지원하게 된다.

농협은 이와 함께 금융협회 등을 통한 기부금 40억원 전달, 20억원 상당의 강원지역 농특산물 선수촌 제공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금융편의를 위한 글로벌 ATM기기 전환 등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선전 기원 격려금 전달

농협은 8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 1억원을 전달했다. 격려금 전달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성조 선수단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병원 회장은 앞선 2월에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병원 회장은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성공적인 아시아인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농업 · 농촌을 위해 헌신하는 농협이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농협의 소중한 정성은 국가대표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PHOTO STORY



- ① 농협상호금융 소성모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은 서울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을 찾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 ② NH농협은행은 경기 포천시 관인중학교와 인근 마을에서 찾아가는 금융교실을 열었다.
- ③ 농협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농협상호금융, 2016년부터 남산원과 사랑교류

농협상호금융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둔 12월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남산원을 찾아 선물을 전달했다.

1952년 설립된 남산원은 연고가 없는 아동이나 교육조건이 불우한 아동을 보호 육성하는 시설이다. 농협상호금융은 2016년 연말부터 남산원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소성모 대표와 임직원들은 농협쌀과 과일을 전달하고 패딩점퍼, 부츠, 장난감 등을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소성모 대표는 “추운 날씨 속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남산원을 찾았다”며 “농협이 전하는 선물이 기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찾아가는 금융교실’ 개소

NH농협은행은 5월 16일 경기도 포천시 관인중학교와 인근 마을을 방문해 ‘농심(農心)을 담은 작은 학교’를 열고 학생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버스형 이동점포에 실제 은행창구를 구현한 ‘농심을 담은 작은 학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과정에 맞춰 은행원이 돼 보는 직업체험 현장교육이 진행됐으며, 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한 시니어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출빙자 사기 등 전화사기 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예방법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체험 교육에 참가한 관인중학교 최동준 학생은 “격오지에 있어 이런 체험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돼 좋은 경험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성금 기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광복절 73주년을 맞은 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삼의사(이봉창 · 윤봉길 · 백정기) 묘역을 참배했다. 아울러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김형오)를 방문, 성금을 기부했다.

김 회장은 김형오 회장과의 환담에서 “백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감명과 교훈을 주고 있다”며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농촌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2년 10월 개관한 백범 김구 기념관은 김구 선생의 일대기에 관한 각종 기록과 자료가 전시돼 있다. 김구 선생 묘역과 삼의사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과 함께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협재단, 경북 고령의 농업인에 보행기 지원

농협재단(이사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경북지역 고령의 농업인에게 보행기 1천 719대를 지원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9월 11일 경북 관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농업인에 대한 활동 편의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농협재단이 2억5천700만원 상당의 보행기(실버카) 1천719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재단은 농촌의 유지·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7월에 설립,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장학·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영농인재 육성과 농촌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농협 애덕봉사회 주말농장 개장

제주농협 애덕봉사회 회원 20여 명은 4월 28일 사회복지시설 애덕의 집에서 장애인과 함께 가꾸는 주말농장을 개장하고 상추, 깻잎, 고추, 쑥갓 등을 심었다.

이번 주말농장은 장애인들의 원예치료 차원에서 1년간 운영하게 된다. 애덕봉사회는 농장에서 가꾼 농산물을 복지시설 식당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봉사회는 2008년부터 매년 주말농장을 개장하여 주말 봉사활동 시 시간을 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과 함께 제주시에 있는 제주장애인요양원을 찾아 ‘사랑나눔, 소리나눔’을 주제로 미니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PHOTO STORY

4

④ 농협재단은 경북지역 고령 농업인에게 보행기 1,719대를 지원했다.

5

⑤ 장애인과 함께 가꾸는 주말농장 개장_제주농협 애덕봉사회





PHOTO STORY

①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초청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농협은행 서귀포시 지부, 심폐소생술 교육

제주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는 6월 12일 농협은행 서귀포 시지부를 방문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구급대원 지도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4월 3일 성산일출봉농협 신산지점에 근무하는 고종욱 과장보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을 발 빠른 대응으로 위기에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농협동 릴레이 농촌 일손돕기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은 4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 불미지마을에서 도농협동국민운동 업무협약(MOU)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도농협동국민운동 MOU단체와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는 총 7차에 걸쳐 실시된다.

이날 행사에는 도농협동연수원 교직원과 MOU단체인 동작구 사랑의 열매나눔봉사단,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등 총 40명이 참여했으며, 화훼하우스 모종작업, 상토작업, 화훼 정리, 독거노인 텃밭 가꾸기, 마을 환경정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영자 동작구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 단장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갑하 도농협동연수원장은 “도농협동운동 동참은 농업·농촌의 현장에 찾아가서 서로 돕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농협동연수원은 올 한 해 도농협동국민운동 MOU단체와 함께 연수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HOTO STORY

② 도농협동국민운동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와 함께한 농촌 일손돕기_도농협동연수원



나눔

나눔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의 미학을 실천합니다





팔도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2018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협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10만 포기

서울의 한 유통업체가 김장철이면 서울시청 앞에서 불우이웃에게 나눠 줄 김장김치행사를 대규모로 하더라. 농협도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모두 모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청난 자원봉사자에 물량규모도 엄청났을 텐데...

범농협이
한 곳에 모여
김장축제를 열다

겨울철이 시작되면 농협 김장나눔 행사에 참가해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 왔던 한 자원봉사자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들이 개별적으로 김장나눔 행사를 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던 목소리이다. 바로 이런 아쉬움을 털어버리는 농협의 화답이 2018년 11월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팔도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2018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였다. 1500여명이 한곳에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는 장관은 범농협 사회공헌만이 그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PHOTO STORY

1 2

① ② 2018년 11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팔도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국민행복나눔! 김장대축제'는 1,500명의 여성 농업인이 10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농업인 행복콜센터의 홀몸어르신에게 전달되었다.

“김장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성 농업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자들이 김치를 많이 담가 가족 건강을 챙기고 농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with 사람,
with 문화,
with 소통’

전국의 팔도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2만 포기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행복콜센터’의 홀몸어르신 등에게 전달되었다. 또 전국 각지 농협에서 전달하는 8만여 포기를 합쳐 총 10만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다.

특히, ‘with 사람(여성 농업인 위로), with 문화(김장문화 계승), with 소통(농업인과 소비자의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해 값진 농산물을 수확해 낸 팔도 여성 농업인들과 함께하고(with 사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김치의 전통적 가치와 나눔의 문화를 계승하는 한편(with 문화), 농업인과 소비자 간 소통의 장(with 소통)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행사와 함께 운영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선 무 · 배추 · 마늘 · 고추 · 젓갈 · 소금 등 각종 김장재료를 최대 7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국무총리 · 농식품부장관 · 농협중앙회장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인기 연예인들이 내놓은 애장 기증품들을 경매형식을 빌어 판매하는 ‘행복나눔바자회’도 함께 열렸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농협이 조성한 성금 3,000만원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었다.

함께 담그는 김치는
나눔의 아이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김장의향 소비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가구의 비중이 65%로 집계되었다. 번거롭더라도 가족의 입맛과 건강을 위해 직접 김장김치를 담근다는 가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시판김치를 사는 가구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8.1%에 불과했던 김장을 담그지 않는 가구비중이 2018년에는 16%에 달했다.

협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문화는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 농협은 김장을 도시와 농촌,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함께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사랑의 김치’ 4톤 소외계층에 전달

(사)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는 농협 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1월 30일 지역본부에서 ‘2018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청 새살림봉사단 회원들과 결혼이민 여성 농업인, 농주모 및 고주모 임원진, 경북농협 채움누리봉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 김장김치의 전통과 나눔의 미덕을 체험했다.

이날 정성스레 만들어진 김장김치 4,000kg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복지기관, 영덕 태풍 이재민 및 소외계층 등에 전달되었다.

대비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눔문화와 봉사정신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김장김치 2,500kg를 담가 종로·중구지역 소외계층 250가구에 전달했다.

김장나눔을 위한 재료는 ‘또 하나의 마을’ 협약을 맺은 여주농협을 통해 구매, 지속적인 도농교류 약속도 실천했다. 농협생명은 2015년부터 종로·중구봉사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제빵’ 활동을 시작으로 ‘삼계탕 Day’ 봉사, 설맞이 선물꾸러미, 한가위 송편나눔, 동절기 김장나눔 등 계절별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고주모·농주모 김장나눔 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1월 27일 신안군 압해면 신안군민체육센터에서 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전남농협이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훈훈함을 더했다.

혹한기 소외계층 위한 ‘따뜻한 김장나눔’ 봉사

NH농협생명은 11월 27일 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따뜻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김장나눔은 혹한기



PHOTO STORY

1
2 3

- ① 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4톤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전달했다.
- ②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김장나눔’_NH농협생명
- ③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이 함께한 사랑의 김장나눔_농협 전남지역본부

이번 행사는 겨울철 김장문화의 취지를 살려 김치를 통한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하고, 김장담그기 붐 조성으로 올 한 해 잦은 농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봉사회원 150여 명은 2,500여 포기, 1,004박스(5kg) 김장을 담가 전남 관내 농촌지역 홀몸어르신, 취약농가, 지역복지 시설 등에 전달했다.

또 전남농협은 올겨울 고향주부모임·농가 주부모임 회원들과 각 지역에서 5만 포기의 김장을 담가 전남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릴레이 김장나눔을 진행했다.

시원한 여름김치 나눔행사

농가주부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름철 김치 담그기를 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사)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농협 용인시지부와 함께 6월 5일 용인시 원삼면 연미향 마을에서 농가주부모임 시·군회장과 결혼이민여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여름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철 농산물인 얼갈이와 열무, 오이로 담근 여름김치 50상자(500kg)를 용인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경기농협은 이번 행사에 이어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경기미 쌀케익 만들기’, 다육식물 농장 견학 등을 진행했다.

경찰청과 연말 공동봉사활동 실시

농협중앙회와 경찰청 공동봉사단원 40여 명은 12월 18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 쪽방촌을 방문하여 난방용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PHOTO STORY

4

④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한 여름김치 나눔 행사_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

5

⑤ 농협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 중구 후암로에 위치한 남대문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쌀과 굴, 온풍기 등 물품 전달 외에도 애로사항 청취, 방별 도난방지용 시건장치 설치, 주변 환경 개선봉사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

농협은 경찰청과 농촌지역 안전망 확보 및

공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다. 이날 행사는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하나로 열렸다.



PHOTO STORY

① 연말을 맞아 농협은 서울 청운양로원을 방문, 각종 생필품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점심에 삼계탕을 대접했다.

양로원 어르신에 삼계탕 배식 봉사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운양로원을 방문, 1,000만원을 전달하고 각종 생필품 및 기념품을 기부했다. 또한 어르신들께 삼계탕 배식봉사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운양로원은 1927년에 설립되어 현재 무의탁 어르신 5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날 직접 배식봉사에 참가한 김병원 회장은 “겨울한파에 언 어르신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방문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녹았으면 좋겠다”며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어버이날 지역 어르신 점심 대접

농협중앙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신토불이’ 식당에서 인근 거주 어르신 40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허식 부회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장미꽃을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농협중앙회와 농업박물관에서 준비한 쌀, 프라이팬, 홍삼양갱 등을 전달했다.

허식 부회장은 “어르신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기에 농협이 발전할 수 있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관심을 갖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PHOTO STORY

② 농협은 어버이날을 맞아 중앙회 본관 신토불이 식당에서 인근의 어르신 40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사랑의 온기 배달해요”

대전농협 사회봉사단은 11일 대전 동구 소재동 소외계층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2018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50가구에 전달된 연탄은 모두 1만 장(가구당 200장)으로 대전 농협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대전농협 사회봉사단의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대전농협 사회봉사단은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NH농협은행 대전 영업본부, NH농협생명 대전총국, NH농협손해 대전총국 등 법인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사회봉사 조직이다. 대전농협 사회봉사단은 지난 8월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풍기와 여름과일을 전달하는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전북농협,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및 노동조합은 11월 12일 2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연탄 3,000장과 난방용품을 마련해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연탄을 쌓으며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아 전달했다.

김장근 농협은행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농협은행은 도민과 고객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안아 주고 품어 주는 따뜻한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18년 사회공헌 연간플랜을 수립하여 농촌 일손돕기, 헌혈행사, 사랑의 빵 나누기,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 임신회국원 묘역관리 등 매달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떡국나눔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2월 4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설날 떡국나눔 행사를 후원했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좌중양성당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떡국나눔 행사는 이번이 6회째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회 나누고,



PHOTO STORY

3
4
5

③ 대전농협 사회봉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④ 전북농협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임직원 성금으로 사랑의 연탄 3,000장을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⑤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설날 떡국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더하고, 곱하고’를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150여 명, 농협은행 사무소장봉사회(채우미), 중앙봉사회, 제주여성외국어자원 봉사회 등 봉사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사랑의 떡국을 서로 나눠 먹었으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하공연으로 아라중학교 학생들의 댄스와 필리핀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또 각국 대표로 선발된 이주민들은 숨을 노래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삼계탕으로 무더위 날리세요”

부산지역본부는 초복을 앞둔 7월 13일 부산진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400여 명을 초청해 ‘사랑의 삼계탕’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웃사랑 정신을 널리 퍼뜨리고자 마련되었다.

박학주 본부장은 “우리 이웃들이 농협이 준비한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부산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우촌 삼계탕 1,000인분 나눔행사

농협 목우촌과 농협사료는 8월 1일 서울시 강동구청장실에서 소외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목우촌 삼계탕 1,000인분을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지역나눔 행사는 강동구청 산하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동푸드마켓에 진열되며, 여기에 기탁받은 식품은 이용대상자인 저소득 회원이 마켓에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여 무상으로 가져가게 된다.

농협사료 김영수 대표이사는 “폭폭 찌는 무더위에 소외이웃들이 보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시라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농협의 기본이념인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통 고추장 담그기 체험과 나눔

(사)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는 고향주부모임과 연합으로 3월 28일 원주 호저면 섬강 매향골권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2018년 강원 농협 행복나눔 사랑의 전통장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주모·고주모의 도 임원 및 시군 회장 및 회원, 결혼이민 여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12월 회원들이 손수 담근 유기농 콩으로 쏜 메주로 전통 고추장을 담갔다. 또한 친정부모 인연 맺기 결연을 통해 초청받은 결혼이민여성들은 전통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 발효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담근 전통 고추장은 고주모와 농주모 봉사단에서 보살피고 있는 도내 18개 시군의 농촌지역 취약계층 800여 가정에 전달되었다.

PHOTO STORY

1 2

① 사랑의 삼계탕 전달식 _부산농협지역본부

② 소외계층을 위한 삼계탕 1,000인분 나눔행사_목우촌, 농협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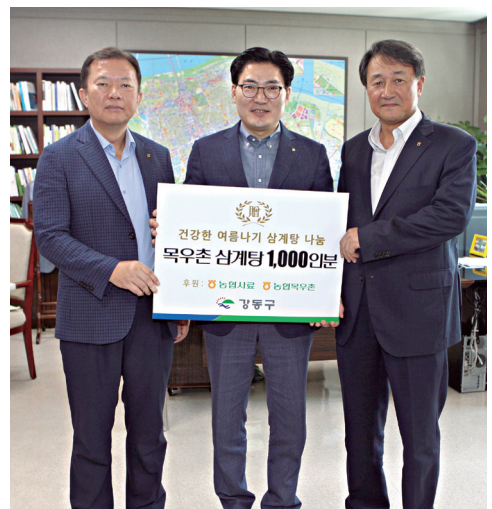




PHOTO STORY

3
4 5

- ③ 전통 고추장 담그기 및 체험행사_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
- ④ 노인요양시설에 '사랑의 전통 된장' 전달_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
- ⑤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한 NH농협은행 전북마케팅추진단 직원들

1년간 숙성, '사랑의 전통 된장' 전달

(사)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4월 3일 수원시 장안구의 노인요양시설인 '평화의 모후원'에서 사랑나눔 전통 된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전통 된장(200kg)은 지난해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양평군 지평농협 전통장류 가공공장에서 전통방식으로 장을 담근 후 1년간 숙성해 만든 것이다.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2007년부터 회원들이 직접 담근 전통 된장과 딸기 잼을 판매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온기를 나누자

전북농협은 3월 5일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사랑의 온기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운동에 농협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헌혈을 마친 임직원 중 20여 명은 헌혈증서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해 두 번의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북농협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매월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PHOTO STORY**
- 1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와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선풍기 200대를 전달했다.
 - 2 도산노인복지회관에서 펼친 '사랑의 팔죽 나눔' 농가주부모임 울산시연합회
 - 3 사랑의 빵 나누기_농협은행(전북영업본부)

영등포 쪽방촌 어르신들께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 서윤성 준법감시·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과 준법감시부·소비자보호부·자금세탁방지센터 직원들이 8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와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폭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가정에 사랑의 쌀 50포를 전달했다. 서울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500여 명의 생활안정 지원, 의료, 건강 증진 및 자활 등을 돕는 복지시설이다.

NH농협은행은 7월에도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와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200대를 전달했다. 이번 선풍기 전달은 국민의 농협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했다.

정성 가득한 '사랑의 팔죽나눔'

(사)농가주부모임 울산시연합회는 12월 4일 관내 도산노인복지회관(울산시 남구 대현동 소재)에서 팔죽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직거래장터 운영 수익금과 딸기 잼 판매 수익금을 활용하여 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박 2일 동안 정성들여 끓인 팔죽과 떡, 과일을 대접했다.

울산 농가주부모임은 6월에도 울산지역 딸기 농장의 끝물 딸기로 딸기잼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계절에 맞는 신선한 물김치 200통을 직접 담가 독거노인과 다문화이민 여성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물김치 나눔행사는 매년 김장 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실시해 지역민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랑의 빵 나누기’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2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서 ‘사랑의 빵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빵 나누기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되었으며, 참석한 농협은행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사랑의 빵’을 구워 냈다. 김장근 본부장은 완성된 빵을 팔복동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며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 설 선물 꾸러미’로 나눔 실천

NH농협생명은 2월 7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센터에서 ‘사랑의 설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행사에서는 백미, 찰쌀, 떡국떡, 만두 등 다양한 먹거리를 포함한 ‘사랑의 설 선물 꾸러미’ 100상자를 만들어 중구지구

‘희망풍차’ 결연가구에 전달했다.

농협생명은 ‘사랑의 설 선물 꾸러미’로 나눔 실천과 함께 농촌 활력화를 위한 도농교류 확대 약속도 실천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된 쌀, 떡국떡 등은 모두 ‘또 하나의 마을’ 결연을 맺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도전마을(여주농협)을 통해 구입했다.

십시일반 추석맞이 나눔

NH농협노조 제주지역본부(위원장 김대현,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제주본부장)는 9월

11일 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후원해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한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목우촌 선물세트를 월드비전을 통해 도내 50가구에 추석맞이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원했다.

범농협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농촌지역 활성화로 균형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석맞이 우리 농축산물 전달,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농촌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나눔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PHOTO STORY

4
5

④ ‘사랑의 설 꾸러미’ 전달_NH농협생명

⑤ 추석맞이 나눔행사_NH농협노조 제주지역본부





PHOTO STORY

1
2

- ① 농협과 경찰청은 공동으로 혜심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 ② 사회복지시설 나눔 축산운동을 펼치고 있는 양평축협 임직원

농협-경찰청, 사랑의 먹거리 나눔 봉사활동

농협중앙회와 경찰청은 1월 31일 서울 용산구 소재 혜심원에서 사랑의 먹거리 나눔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도서·농산물상품권 등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민갑룡 경찰청장을 포함한 양 기관 임직원과 혜심원 권필환 원장, 어린이 3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원 회장과 민갑룡 청장은 혜심원에 도서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하고 설 맞이 만두와 꽃절편을 만드는 등 전통먹거리 체험도 함께 했다. 경찰청·농협 임직원들은 혜심원 어린이들에게 농협쌀로 만든 떡국 배식 활동도 했다. 농협은 지난해 경찰청과 농촌지역 안전망 확보 및 공동 봉사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하나로 열렸다.

김병원 회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경찰청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해 나가겠으며,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올해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역점 추진한다. 지역사회공헌부를 신설, 단순 일회성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관된 봉사활동을 펼친다.

지역밀착화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농협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동반자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기별, 계절별로 공동활동과제를 선정해 사회공헌 활동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장학금 전달(367회, 87억원), 설 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207건, 9억원),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57개소) 및 정월대보름 행사(96회)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양평축협 나눔축산운동 전개

양평축협(조합장 윤철수)은 22일 1천200만원 상당의 물맑은양평개군한우 120세트를 양평 군에 전달하고 나눔축산운동을 전개했다.

윤철수 조합장은 “지속적인 한우가격 하락과 소비위축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연말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축산 운동’을 통해 나눔의 실천과 아름다운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한우를 전달하게 됐다”며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망

希望

세상을 바꾸는 힘! 청소년의 꿈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농협재단 새 프로젝트, '미래 농촌정주 장학생 프로그램'과 '파란농부'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장학사업

고령화로 일꾼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농촌은 뒤집어 생각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보고(寶庫)'입니다. 젊은이의 귀농은 농촌 일자리에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고, 이들의 정착과 창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_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겸 농협재단 이사장

청년농부에 거는 농협의 희망 프로젝트

2004년 7월에 설립된 농협재단은 2008년부터 '농협 인재육성장학생' 제도를 통해 대학 신입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시까지 일정 자격을 유지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300만원 한도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다른 장학금 지원과 달리 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재단은 200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농업인 자녀 1만6,000여 명에게 장학금 367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농협재단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농촌지역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농협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2월 서울 강북구에 개관한 농협장학관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월 10만원) 기숙사비, 국내 농산물만으로 제공되는 식사,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모의면접, 메이크업 특강, 영어교육 수강, 부모님 초청행사, 우리 농업 이해하기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꿈을 찾아 농촌에 동지를 틀도록 장학금 지원

농협재단은 농촌에 희망을 밝힐 새로운 프로그램 두 가지를 추가했다. 하나는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농촌정주 장학생’ 프로그램이며, 또 하나는 우리 농업에 파란을 일으킬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인 ‘파란농부’를 선발한 것이다.

‘미래 농촌정주 장학생 프로그램’은 농고생과 농대생이 자신의 전공분야인 농업에서 꿈을 찾아 농촌에 동지를 틀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고생에게는 연간 100만원, 농대생에게는 연간 500만원까지 학비를 지원한다.

농협재단은 장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농사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와 손잡고 선도농가를 멘토로 연결해 주고, 작목선택·영농기술·자금지원·상품생산과 관련한 종합컨설팅도 주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만 청년 농업인 19명이 탄생했다.

“농협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전국 곳곳을 돌며 선진 영농사례를 접하다 보니 농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17년 농협재단 ‘미래 농촌정주 농고생 장학생’ 주진홍(20·경북 의성군 구천면 조성리); 2018년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 누나와 함께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농촌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 외롭지만 꿈이 있어 즐겁습니다. 돼지를 키워 부농의 꿈을 꼭 이룰 겁니다.” -‘미래 농촌정주 농대생 장학생’ 이상혁(25·전남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2018년 순천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과 함께 장학생 시절 돌려봤던 스마트팜을 벤치마킹해 첨단사육기술로 돼지를 사육하는 꿈을 키워 가고 있다.

농업에 파란을 일으킬 청년 농업인 지원 프로젝트

청년 농업인의 꿈을 지원하는 농협재단의 사회공헌사업인 ‘미래 농업의 희망-파란농부’는 농업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농협재단에서 도입한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이다.

파란농부 육성계획은 김병원 농협회장이 자신의 저서 <위드하라>를 판매해 받은 인세 수입 전액을 농협재단에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또 허식 농협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도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파란농부 1기 30명은 지난 4월 전국의 총접수자 1,140명 중 내·외부 농업전문가의 면접을 통해 지난 5월 31일 최종 선발되었다. 파란농부 1기생들은 농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8월)과 네덜란드(10월)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농협재단은 2019년에도 30명 안팎의 파란농부 2기생을 선발한다.



PHOTO STORY

1 2

① 미래 농촌정주 및 인재육성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_농협재단

② 2011년에 개관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농협장학관



PHOTO STORY

1	2
3	

- 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_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 ② 제주대에 인재육성장학금 기탁_NH농협은행 제주대학교지점
- ③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희망나눔장학금 지급_NH투자증권

충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금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11월 2일, 충남도청을 방문,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충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재)충남인재육성재단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원종찬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은 “충남 인재의 꿈을 응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나눔의 금융’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 장학사업, 충남대전 학생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재육성 기관으로, 현재 서울지역에 재학 중인 충남 출신 학생들의 정주여건 및 학비절감을 위하여 충남서울 학생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대에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NH농협은행 제주대학교지점은 11월 12일 제주대학교에 지역인재 육성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이영호 지점장은 “전달된 장학금이 제주대학교 지역인재 육성에 조금 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제주대학교와 학생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청소년에게 희망나무장학금

NH투자증권은 3월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13기 희망나무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학비 일체를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67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장학생 모두 농촌 지역(군 단위 이하) 저소득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으로 선발했으며, 농가 자녀를 우선 선발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전년도 13기 장학생 13명에게는 대학 입학 축하격려금 각 200만원을 전달했다.

농업인이 조성한 장학금, 케이멜론

농협은 1월 25일 농협은행 신관에서 제6회 케이멜론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케이멜론이 2012년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받은 부상을 뜻깊은 곳에 쓰고 싶다는 농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멜론전국연합공선회 소중영 회장, 서울시교육청 권순주 장학사, 농협경제지주 이흥묵 회원경제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장학생 2명(배문고 엄진욱, 월계중 김상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케이멜론 장학사업은 농업인이 도시의 미래세대를 지원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PHOTO STORY

- 4 농업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_K-멜론
- 5 조합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_경주시 외동농협

지역인재 발굴 · 육성 위해 장학금 지원

경북 경주시 외동농협은 2월 13일 농협 임원 및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2018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인재 발굴 · 육성 및 농업인 조합원의 학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고 있다.

외동농협은 장학금 수혜학생들이 훗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주기를 희망했다. 외동농협은 2004년부터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꾸준히 장학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96명의 학생에게 6억9,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8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등

314억원
36,437명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혜인원

24억원
521명



농업장학관 운영
(지원금, 수혜인원)

3.2억원
5,426개소



어린이 소망가꾸기
(학교 도서보내기)

사내 어린이집 방문, 선물 전달, 보육교사 격려

농협중앙회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 위치한 사내 어린이집을 찾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버블쇼를 관람하고 장난감 등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한 후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병원 회장은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도 하루 앞선 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능기부 ‘매직테니스 레슨교실’ 개최

NH농협은행은 10월 8일 전북도청 테니스장에서 농업인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매직테니스 레슨교실’을 열었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 농촌지역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50여 명과 NH농협은행 스포츠팀 테니스 선수들이 함께했다. 특히, 2018 WTA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개인복식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테니스의 저력을 보여 준 최지희 선수도 일일교사로 나서 적극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매직테니스’는 작고 가벼운 라켓과 말랑말랑하고 예쁜 색깔의 고무 공을 활용해 실제 네트보다 작은 공간에서 어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후원

NH농협카드는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해 후원금 기부를 통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NH농협카드는 지난 12월 13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한 후원금 5천만원을

PHOTO STORY

① 어린이날 농협중앙회 본관 사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 김병원 농협회장





PHOTO STORY

2

3 4

- ②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매직테니스 레슨교실'_NH농협은행
- ③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_ NH농협카드
- ④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_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앞둔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와,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나음상자'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음상자는 '나을 수 있다는 마음',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무균실 생활에 필요한 10종의 물품과 함께 이식을 경험한 완치자와 보호자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식 치료를 앞둔 소아암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나음상자' 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을 통해 가발, 놀이치료, 문화예술체험, 자기성장프로젝트 등 소아암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5월 24일 우도의 우도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집을 찾아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2월에는 아라동 어린이와 노형동 학생의 집에서 '사랑의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봉사를 진행했다.

'청소년 사랑의 공부방 선물봉사'는 우도, 추자도 등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의 조손가정이나 편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도배·장판 교체, 책상·책꽂이·의자 구입 및 설치 등을 해 주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14년부터 매년 '사랑의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 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마다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PHOTO STORY**
- 1 '행복채움 금융교실'에서 일일교사로 변신한 이대훈 NH농협은행장
 - 2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운영_NH농협생명 충북총국, 남청주농협
 - 3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아동지원 후원금 전달_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농협은행장, 금융교실서 일일교사로 깜짝 변신

NH농협은행 이대훈 은행장은 4월 3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관내 중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채움 금융교실'에서 일일교사로 나섰다.

이날 '행복채움 금융교실'은 ▲은행원 직업체험 ▲통장 만들기 ▲위폐 감별법과 금융사기 예방교육 ▲신비한 금고 체험 ▲금융 애니메이션 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NH농협은행의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실제 영업점을 구현한 공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과 은행원 직업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모두레 어린이경제·금융교실' 열어

NH농협생명 충북총국과 남청주농협은 7월 18일 관내 갈원초등학교와 남이초등학교를 방문,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열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모두레'란 농협의 협동조합 정신을 뜻하는 '모두'와 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을 뜻하는 '두레'의 합성어로, '모두레 어린이경제·금융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경제·금융의 순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농협생명은 '모두레 어린이경제·금융교실'을 통해 금융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대적으로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아동의 창의적 체험활동 후원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9월 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본부에 지역아동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도내 지역 아동센터 1,600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식물성장과정 체험활동으로 생명존중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재능과 흥미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한 지원도 하게 된다.

농협은행은 "아이들에게 디지털 속 영상과 글자가 아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고, 사람과 자연 속에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후원금 전달배경을 설명했다.

호기심과 상상력 자극, 미술공연 후원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3월 23일 광산구청을 찾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최현우 미술공연' 관람권을 전달했다.

광주영업본부는 평소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400명의 문화공연 단체관람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최현우 매직쇼' 관람을 결정했다. 관람권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 기탁, 광산구청에서 추천한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청소년들은 31일과 4월 1일 단체관람을 실시했다.

양육시설 아동과 놀이동산 체험행사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10일 아동 양육시설 '계룡학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동산 체험행사'를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대전 오월드놀이동산 체험활동은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사파리 체험, 놀이기구 탑승, 야외공연 관람 등을 함께했다.

농협은행은 즐거운 야외 체험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밝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계룡학사'는 지난 2015년 4월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봉사활동과 후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PHOTO STORY

4

5

④ 양육시설 아동과 함께한 놀이동산 체험행사_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최현우 매직쇼' 관람권 전달_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PHOTO STORY

① NH농협은행은 인도 초등학교에 학용품과 책걸상, 화장실 펌프시설을 지원했다.

인도 초등학교에 펌프 설치 등 지원

NH농협은행은 9월 11일 인도의 노이다 지역 초등학교에 학용품을 전달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이대훈 은행장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방문에 이어 인근 노이다 지역 NIV초등학교를 방문, 화장실 펌프 설치, 책걸상 교체 및 학용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 이 지역에 사무소 개소 이후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기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 컴퓨터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위한 대학생 논문공모전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9월 20일 농협신관 대회의실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대학생·대학원생 논문공모전' 발표회와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사 결과 대학생 최우수상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학생 인식 및 홍보방안'(경상대 차영빈·고승보·정의진)이 선정되었고, 대학원생 최우수상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인지 및 중요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전남대 박서운)이 선정되었다.



PHOTO STORY

②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대학생·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회

“농협, 청년농부를 위한 ‘꿈의 산실’ 될 것” 청년농부사관학교 1기 농담(農談)토크

“청년농부들의 꿈을 실현하는 산실이 되겠습니다!”

경기 안성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는 9월 10일 아이디 어홀에서 김병원 농협회장, 유찬형 농협중앙회 상무, 남양호 농협인재개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농부사관학교 제1기 입학생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정예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설립 되었으며, 같은 달 3일 처음 문을 열고 6개월간 합숙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실습을 통한 농사기술, 농기계 작동법,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유통판매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현재 모두 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4세다. 대부분 농업 외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종사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뒤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찾은 이들이다. 이날 대화의 시간에서 입학생들은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찾은 배경과 자신들이 이뤄갈 꿈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냈다.

네 자녀를 둔 김병용 씨(38·서울)는 “도시의 갑갑함에서 벗어나고자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재미 있고 건강한 농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농부사관학교 입학생 모두의 꿈을 청취한 김병원 회장은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성공한 삶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며 “농협은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관념을 깨고 파란을 일으켜라... ‘파란농부’

‘파란농부’ 1기 청년들이 7월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힘찬 미래를 다짐했다.

‘파란농부’ 1기 29명은 4월 농업에 꿈과 열정이 있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농업인 신청자 중에서, 외부 농업전문가의 면접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되었다.

이들은 이후 약 3개월 간 연수 세부 프로그램 준비,



PHOTO STORY

3

③ 청년농부사관학교 1기 농담(農談) 토크

4

④ 파란농부 1기생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을 받아 일본과 네덜란드로 농업연수를 다녀왔다.

농협은 이들이 ‘파란농부’라는 이름처럼 농업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 파란을 일으켜 농업을 미래 블루오션으로 선도하는 농업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범농협인 모두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향해 나아갑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향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임하는
범농협인의 얼굴엔 미소가,
가슴속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미소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나눔과 봉사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환하게 웃는 그날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갑니다.

2018 범농협 사회공헌보고서

발행일	2019년 7월
발행처	농협중앙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기획 · 디자인	한국기록문화연구협동조합

동심동덕

